

1998. 12

# 농업·농촌경제동향

1998 4/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목 차

## < 요약 >

I. 세계 경제 동향 .....	1
1. 경제성장 .....	1
2. 교역량 및 환율 .....	2
3. 원유 및 국제원자재 .....	3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	4
1. 세계의 주요 곡물 수급 상황 .....	4
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	5
III. 국내경제 동향 .....	9
1. 경제성장 및 환율 .....	9
2. 물가 .....	11
3. 소비 .....	18
4. 고용 .....	22
5. 경제전망 .....	24
IV. 농업경제 동향 .....	26
1. 주요 품목별 가격 .....	26
2. 농산물 수출입 .....	40
3. 농업인력 수급 .....	43
4. 농가 교역조건 .....	45
<u>농정 이슈</u>	
○ 일본의 쌀 조기 관세화 결정과 향후과제 .....	46
○ 유러화 출범의 의미 .....	70
<u>국제 곡물 수급 동향</u> .....	81

## < 요약 >

### I. 세계 경제 동향

-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 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을 반영하여 1998년에 1.9%, 1999년에는 2.5%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세계교역량은 미국 및 EU의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9년도에도 교역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유러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원유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으나,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예측되어 1999년에는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 II. 세계 곡물수급 동향

-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산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확량 호조로 옥수수, 소맥,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의 경우 세계 최대 미곡생산국인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감수 예상과 미국의 기말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균형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은 공급측의 안정요인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쌀은 지난달의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수개월간 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이상기상(라 니냐 발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약보합세로 전망되며, 쌀 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Ⅲ. 국내경제 동향

- 국내 경제는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기위축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음.
  - 제조업 생산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둔화되었으며, 농림어업 생산은 3/4분기에 5.6% 감소함. 환율은 11월 수준(1,244원)을 유지하거나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품은 흉수피해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4/4분기 생산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으로 전반적인 상승세였지만 금년 초기에 비교해 안정세를 유지함.
- 민간소비는 최근의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유지, 정부의 소비활성화 조치, 경제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등으로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임.
- 정부의 적극적인 고용촉진책으로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고용구조는 임시직 위주로 크게 바뀌고 있음.
- 1999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한국은행과 대우경제연구소를 제외한 국내외 많은 기관들이 플러스 성장으로 전망함.
  - 1998년도는 모든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최저  $\Delta 5.6\%$  성장에서  $\Delta 7.1\%$  성장으로 예측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도 성장률을 2.2%로 전망함.

#### IV. 농업경제 동향

□ 4/4분기에 주요 농산물 가격은 홍수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상승하였음.

- 일반미는 전분기 대비 0.3% 가격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전년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돼 전년 가격과의 차이는 9월에 6.9%에서 9.5%로 더 벌어짐.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찹쌀은 전분기에 이어 하락세를 지속했으며, 콩은 해외 도입량 감소로 4/4분기 들어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함. 감자와 고구마는 수확량 감소에 따라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 3/4분기에 급등했던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이후 빠르게 하락함. 오이도 시설출하 물량의 증가와 수요 증가로 상승세를 보임. 마늘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됐지만 4/4분기 들어서면서 안정되고 있으며, 건고추도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됨.
- 생산량 감소 및 배에 대한 수요 대체로 급등했던 사과도 4/4분기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배는 출하물량 조절 노력으로 점차 회복세로 돌아섬.
-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하락폭이 컸던 한우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여 4/4분기에는 전년도 수준에 근접함. 쇠고기 가격도 7월 이후 6,000 원대에서 유지됨. 하락세에 있던 산지 돼지고기 가격은 일본 수출 물량의 증가로 12월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수입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 및 계란 가격은 원가 상승요인을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약 15% 정도 높게 형성됨.

- 농산물 수출입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의 감소폭이 훨씬 커 농산물 무역역조는 크게 개선되고 있음. 10월까지 지난해 동기 대비 32억 달러 개선됨.
  - 수출은 엔화 가치 하락 및 수출단가 하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출액은 감소함. 월별 수출은 8월에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대일본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돼지고기, 화훼류, 채소류 등의 수출기여도가 높음.
  - 농산물 수입은 국내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전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함. 곡물류, 축산물, 임산물 수입이 크게 줄었으며, 밀은 국내수요 증가 및 기업의 원자재 확보 노력으로 수입이 오히려 증가함. 특히, 옥수수와 대두 및 과일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농림업 취업자수는 1월을 최저점으로 차츰 증가했다가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다시 감소하기 시작함. 귀농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귀농가구수는 11월까지 5,967가구로 지난해 1,823가구보다 약 3.3배 증가함.
- IMF 이후 크게 악화되었던 농가 교역조건은 3/4분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가 4/4분기 들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한우를 중심으로 한 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홍수피해 및 재배면적 감소에 따른 곡물 및 청과물 가격의 상승으로 조금 상승함.
  - 농가구입가격지수는 농촌임료금이 하락하기는 했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가격이 크게 교역조건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음.

## V. 농정 이슈

□ **일본의 쌀 조기관세화:** 지난 12월 21일 일본은 쌀의 조기관세화를 결정하고 WTO에 이를 통보함.

- 그 동안 일본은 쌀 재고는 늘어나는데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해마다 수입해야 했으며, 정부가 수입량을 모두 관리하는데도 시장 가격은 계속 하락함. 따라서 일본정부는 쌀의 조기관세화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일본이 쌀을 조기관세화한 것은 MMA 물량의 감소를 통한 재고량 감소, 관세화에 따른 고율의 관세상당치 설정, WTO 차기협상에서의 주도권 획득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됨.
- 일본은 WTO 차기협상에서 ‘쌀특례조치협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벗어나 다른 농업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게 됨.

□ **유러(euro)화의 출범:** 1999년 1월부터 유럽은 각국의 통화를 ‘유러’라는 하나의 통화로 통일하기 위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섬.

- 유러 체제 출범 의미는 국제금융시장에 새로운 기축통화가 탄생함으로써 달러와 양극체제로 가게 될 것이며, 유럽은 하나의 가격이 정해짐으로써 가격이 하향 안정되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
- 유러 체제 출범으로 공동농업정책(CAP)에 대한 유럽 농민들의 불만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 동안 농민들은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함으로써 농가 수취가격의 불안정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I. 세계 경제 동향

### 1. 경제성장

세계경제 성장률은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 및 서유럽의 성장 둔화와 일본 및 개도국의 저성장을 반영하여 1998년에 1.9%, 1999년에는 2.5%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

- 1998년 세계경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전년 대비 1.4% 포인트 낮은 1.9% 성장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다소 회복된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금리인하 및 선진국의 세계불황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로 1999년에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 태평양연안국 중심의 아시아권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남미 개도국은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대미 수출 위축 등으로 1998년 각각 마이너스 4.1% 와 2.1% 성장으로 예측되나, 1999년에는 상당히 회복되어 각각 1.1%와 2.8% 성장 전망.

####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GDP 기준,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세계	3.4	3.3	1.9	2.5	2.9	3.2	3.4
선진국	2.8	2.8	2.1	2.1	2.3	2.6	2.6
미국	3.4	3.9	3.4	2.4	1.9	2.3	2.3
일본	4.1	0.8	△2.4	0.4	1.7	3.0	3.2
독일	1.4	2.3	2.4	2.2	2.8	2.6	2.7
영국	2.2	3.4	2.5	1.8	2.5	2.5	2.7
개도국	5.9	5.0	1.4	3.7	4.9	5.4	5.7
태평양연안국	6.6	5.2	△4.1	1.1	4.2	5.1	5.7
중남미	3.1	4.7	2.1	2.8	4.4	4.4	4.9
중국	9.7	8.8	7.0	8.0	8.2	8.5	8.7
한국	7.1	5.5	-6.0	0.6	4.8	5.6	5.6

자료: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8. 4th quarter.



## 2. 교역량 및 환율

세계 교역량은 미국 및 EU의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8년에 이어 1999년도에도 교역 신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며, 1999년도 미 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하강국면 진입 및 유로화 출범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세계 교역량은 미국 및 서유럽의 수입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및 개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1998년 교역량 신장률은 4.1%~6.2%, 1999년에는 5.6~5.7% 수준에 머물 전망.
- 1998년 9월말 이후 약세로 반전된 미달러화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 큰 폭의 무역 적자, 유로화 출범 등에 따른 상대적 수요감소로 인해 현재의 약보합세가 지속될 전망.
  - 엔/달러 환율은 미·일간의 성장률 축소 및 무역수지 불균형의 영향으로 강보합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마르크/달러 환율은 독일 경제의 건실한 성장과 유로화 출범 등의 영향으로 강보합세로 전망됨.

### 세계 교역량 및 주요통화 환율 전망

단위: %

		1997		1998		1999	
		WEFA	DRI	WEFA	DRI	WEFA	DRI
교역량	전 세계	0.6	14.1	4.1	6.2	5.6	5.7
	선진국	2.0	10.6	2.1	6.0	9.8	4.2
	미국	11.0	15.4	△0.6	5.0	0.5	5.1
	일본	14.4	8.7	3.7	5.4	7.5	△4.5
	동아시아	4.6	25.2	5.3	15.2	5.4	7.6
	중국	0.9	12.2	4.8	3.4	3.0	4.5
환율	한 국	5.8	16.9	1.7	3.0	5.0	△2.0
	¥/\$	130.1		138.7	138.2	124.0	155.0
	DM/\$	1.79		1.78	1.79	1.66	1.55
	\$/원	951		1,360	-	1,196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4th quarter, 1998.

DRI, *World Economic Outlook*, 3rd quarter, 1998.

### 3. 원유 및 국제원자재

원유가격과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1999년에는 보합 내지 완만한 상승세로 반전될 전망

- 국제 원유가격은 1998년 중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산유량 확대와 아시아지역의 수요 부진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1999년에는 아시아지역 및 세계경제의 경기회복에 따른 재고 소진으로 배럴당 14.3~14.5달러의 약보합세로 전망.
  - 원유 수요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라니냐로 인한 북반구의 혹한에 따른 수요 증가로 어느 정도 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공급은 최근 결렬된 OPEC 생산량 감산회의 등의 여파로 1999년 상반기까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 기타 원자재 가격은 1998년 중 아시아지역 및 중남미지역의 수입수요 감소로 식료품 및 공업용 농산물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1999년에는 이들 지역의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여 소폭의 상승세로 전망되며, 금속·광물은 EU를 중심으로 한 투자 활성화에 따라 수요증가로 가격 상승이 전망됨.

#### 원유 및 기타 원자재가격 전망

단위: %

	1996	1997	1998		1999	
			IMF	WEFA	IMF	WEFA
평균유가(\$/배럴)	20.4	19.3	13.2	13.2	14.5	14.3
(상승률)	(19.0)	(△5.4)	(△31.1)	(△31.5)	(9.3)	(8.0)
원자재가격	△1.3	△3.3	△7.4	△3.8	0.9	0.4
식료품	12.2	△6.8	△1.5	0.0	△0.9	△0.6
금속 및 광물	△11.9	2.0	△8.0	△11.1	3.2	5.0
공업용농산물	△3.0	1.9	△11.9	1.9	△4.6	△1.8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8. 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8. 4th quarter.

## II.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전망

### 1. 세계의 주요 곡물 수급 상황

최근의 세계 곡물수급 상황은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확량 호조로 옥수수, 소맥, 대두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쌀의 경우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감수 예상과 기말재고량의 감소로 수급불안정 요인이 상존

#### 전체곡물

- 1998/99년도 세계곡물 생산량은 전월 예측치 대비 소맥과 옥수수가 약간 줄고 대두와 쌀이 약간 늘어 18억 4,530만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전년대비로는 1.9% 감소, 전월 예상치 대비 0.2% 감소 전망.
  
- 1998/99년도 세계곡물 소비량은 18억 6,380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0.9% 증가, 전월예상치 대비로는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량은 3억 530만톤으로 전년대비 5.7% 감소, 전월예측치 대비로는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량 대비 재고량의 비율은 16.3%로 FAO권장 수준(16~17% 정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전체곡물의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율(%)	
			1998.11월	1998.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산량	1,870.1	1,881.5	1,848.8	<b>1,845.3</b>	△1.9	△0.2
- 소맥	582.9	611.0	588.3	<b>585.8</b>	△4.1	△0.4
- 옥수수	591.4	578.6	597.4	<b>597.0</b>	3.2	△0.1
- 대두	131.7	156.5	153.7	<b>154.1</b>	△1.5	0.3
-쌀(정곡)	380.1	385.0	376.6	<b>377.4</b>	△2.0	0.2
공급량	2,125.3	2,170.5	2,172.4	<b>2,169.2</b>	△0.1	△0.1
교역량	251.2	247.4	239.1	<b>240.7</b>	△2.7	△0.7
소비량	1,836.4	1,846.9	1,866.0	<b>1,863.8</b>	0.9	△0.1
기말재고량	289.0	323.6	306.4	<b>305.3</b>	△5.7	△0.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5, December 11, 1998.

## 2. 국제곡물가격 동향 및 전망

국제곡물가격은 공급측의 안정요인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쌀은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향후 수개월간 소맥, 옥수수, 대두의 국제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 및 이상기상(라 니냐 발생)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하락세에서 반등하여 약 보합세로 전망되며, 쌀 가격은 재고량 감소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FOB

품 목	1995	1996	1997	1998		변동률(%)	
				11월	12월	전년대비	전월대비
소맥	174	188	153	119	<b>118</b>	△22.9	△0.8
옥수수	119	159	118	96	<b>93</b>	△21.2	△3.1
대두	235	288	292	221	<b>212</b>	△27.4	△4.1
쌀 (중립종)	418	468	421	468	<b>479</b>	13.8	2.4

주: 소맥은 US Portland, White Wheat 1 등품가격이며, 옥수수와 대두는 US Gulf 2등 품 가격이고, 쌀은 U.S. California, Medium 1등품 가격임. 1998년 12월 가격은 12월 18일 기준 가격임

자료: 한국경제신문, UNICOM.

#### 소맥

- 소맥의 국제가격은(1998.12.18 기준) 지난 11월초 미국의 대러시아 식량지원 발표 이후 특별한 상승요인 없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량지원을 위한 미국정부의 미국산 밀 구매가 지연됨에 따라 톤당 118달러로 전년대비로는 22.9% 하락, 전월 대비로는 0.8% 하락세로 나타남.

- 향후 소맥의 국제가격은 기말 재고량, 미국의 CRP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 정도 및 소련으로의 추가지원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을 기대한 미국 소맥 생산농가들의 출하기피와 이에 따른 수출업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의 곡물매입세 지속 예상, 동절기 진입에 따른 해상수송운임 인상 등의 요인으로 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의 외환시장 안정회복과 세계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나, 미국의 식부면적 감소 및 재고량 감소와 중국의 생산량 감소 등으로 상승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옥수수

- 옥수수의 국제가격은(1998.12.18 기준) EU지역의 작황 호조에 따른 증산 및 미국의 옥수수 풍작 등의 요인으로 톤당 93달러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난달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전년대비로는 21.2% 하락, 전월 대비로는 3.1% 하락세로 나타남.
- 향후 옥수수 국제가격은 공급측면의 호조 요인으로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요측면의 강세요인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반등세 내지는 약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으로는 가격상승을 기대한 미국 옥수수 생산농가들의 출하기피와 이에 따른 수출업자들과 기관투자가들의 곡물매입 지속예상, 수확완료 동절기 진입에 따른 옥수수 수요 증가 및 해상수송운임 인상 등의 요인이 작용하여 약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곡물의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경제 및 러시아경제의 회복국면 진입과 세계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나, 급격한 상승세 없이 약상승 기조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대두

- 대두의 국제가격은(1998.12.18 기준) 주산지인 브라질 남부 및 아르헨티나의 강우에 따른 작황호조로 세계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고량 증가 전망치 발표와 대두지원물량 발표 등의 영향으로 톤당 212달러를 나타내 전년대비로는 27.4% 하락, 전월 대비로는 4.1%의 하락세로 나타남.
- 향후 대두의 국제가격은 기상여건 및 미국의 CRP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보합세 내지는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단기적으로는 최근 생산측의 호조와 재고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개인들의 매도세력이 우세한 가운데 약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가격상승을 기대한 대두 생산농가들의 출하기피, 동절기 진입에 따른 해상수송운임 인상 등의 상승세 요인도 작용하여 보합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장기적으로는 곡물의 주요 수입국인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회복과 세계 경기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나, 미국의 CRP에 따른 식부면적 감소, EU 및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수입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어 반등세 내지는 약상승세 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

쌀
---

□ 중·단립종 쌀의 국제가격은(1998.12.18 기준) 재고량 감소 및 주요 생산국인 중국의 홍수에 의한 감산 등의 영향으로 톤당 474달러로 전년대비 13.8% 상승, 전월대비로는 2.4% 상승하였음.

□ 향후 중·단립종(자포니카 형) 쌀의 국제가격은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수량감소에 따른 교역물량 및 재고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등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1968~98년간의 시계열분석(과거자료 설명력 62% 범위내) 결과 내년 쌀 국제가격은 상승세 주도의 강세로 전망. 특히 중국의 미곡 수량감소가 상당량에 이르는 경우(소비량의 5%만 수입하게되는 경우 세계 교역량의 33% 차지) 국제미곡시장의 “얇은 시장”(thin market)구조의 특성상 국제미가 전반에 급등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제미곡시장은 타 곡물에 비해 종류(장립종, 단립종, 찹쌀, 향미 등) 및 품질이 다양하여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고, 아시아지역의 생산량은 대부분 자체 소비되고 있어 전체 생산량의 6.2%(1997년 기준)만이 교역되는 “얇은 시장” 구조의 과점(oligopoly) 시장임. 또한 미국의 수요·공급의 가격 비탄력성 등으로 인해 시장교란시 가격변동의 진폭이 매우 크고 불안정함.

### Ⅲ. 국내경제 동향

#### 1. 경제성장 및 환율

경제성장은 최근 산업생산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경기동행 지수 순환변동치도 금년 9월 이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 경기위축세가 둔화됨.

- 3/4분기 전산업의 생산은 2/4분기와 같아 감소추세가 멈춰 침체국면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
  - 3/4분기 경제성장률은 2/4분기와 동일한  $\Delta 6.8\%$ 를 기록하였음.
  - 97년도의 4/4분기 성장률(3.9%)이 3/4분기의 성장률(6.1%)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점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 4/4분기의 성장률은 3/4분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감소세가 둔화되고, 서비스업의 감소세는 약간 둔화됨.
  
- 3/4분기 농림어업 생산은 5.6%의 감소를 보여 2/4분기의 0.9%감소에 비해 감소세가 두드러짐. 이는 홍수피해와 태풍피해로 인한 생산의 감소가 주원인임.

#### 산업별 경제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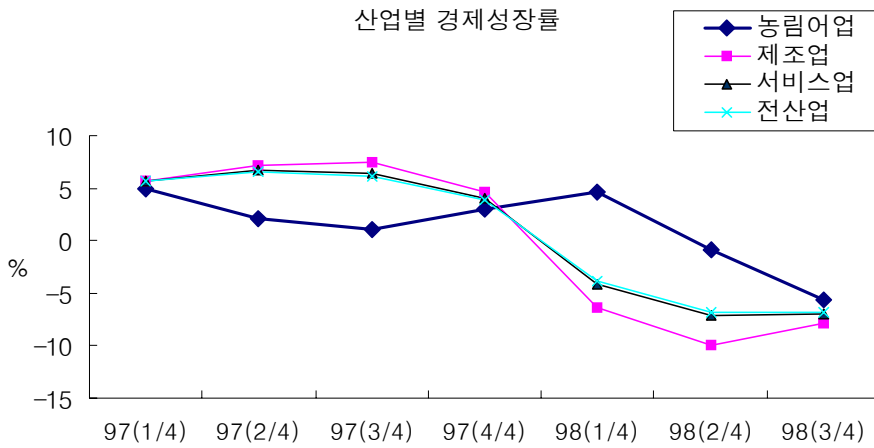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단위: %

	1997					1998					199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5.7	6.6	6.1	3.9	5.5	$\Delta 3.9$	$\Delta 6.8$	$\Delta 6.8$	$\Delta 6.0$	$\Delta 5.9$	2.2
농림어업	4.9	2.1	1.0	3.0	2.5	4.6	$\Delta 0.9$	$\Delta 5.6$	-	-	-
제조업	5.7	7.2	7.5	4.6	6.2	$\Delta 6.4$	$\Delta 10.0$	$\Delta 7.9$	-	-	-
서비스업	5.7	6.8	6.4	4.1	5.8	$\Delta 4.1$	$\Delta 7.1$	$\Delta 6.9$	-	-	-
전 산업	5.7	6.6	6.1	3.9	5.6	$\Delta 3.9$	$\Delta 6.8$	$\Delta 6.8$	-	-	-

\* KDI 전망치임.

자료: KDI, 재정경제부, 경제전망; 한국은행, 주요경제지표.





□ 원화 환율 절하율은 전년동기대비 2/4분기 56.4%에서 점차 절하 폭이 둔화되어 3/4분기에는 46.2%, 10월과 11월은 각각 36.1%, 6.9%로 하향안정 추세를 보임.

○ 12월의 환율이 11월의 환율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원화절상을 가정하면, 1998년 12월의 평균환율은 1997년의 1,415.2원에서 1,200원대로 하향안정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분기별 달러 환율 변동 추이**

(기간중 평균기준환율, 전년 동기대비)

	1996	1997				1998				
		1/4	2/4	3/4	4/4	1/4	2/4	3/4	10월	11월
대미환율	804.5	865.4	891.7	898.6	1,143.9	1,611.7	1,394.6	1,313.8	1,313.8	1,243.7
절하율(%)	-	10.5	13.4	10.0	37.6	86.2	56.4	46.2	36.1	6.9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2. 물가

국내경기 침체로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농림수산품은 흉수피해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3/4분기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 상승률 2.8%에 비해 12.0%로 대폭 상승하였으나 금년의 추세는 점차 하향안정세를 보임.
  - 3/4분기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대비로는 대폭 상승하였으나, 금년 2/4분기 대비로는 하향안정세를 보임.
  - 9월 중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4% 상승.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공업제품이 하락하고 서비스요금도 안정세가 유지되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공산품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3.6% 상승하였으며, 석유류는 전월대비 2.4% 전년 동월대비로는 37.1% 상승하였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월대비 0.2%, 전년 동월대비로는 7.0% 상승.
- 3/4분기 농림수산품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의 2.2%보다 높은 4.4% 상승률을 보임.
  - 농축수산물은 전월대비 3.4% 전년 동월대비 9.0% 상승
- 4/4분기(10, 11월)의 생산자물가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만 금년 전기에 비해서는 감소세를 보임.
  - 농림수산품은 10월과 11월 상승세를 보임

- 원재료는 전년 동월 대비 10월의 15%상승에서 11월에는 7.9% 상승으로 상승폭이 대폭 둔화되어 안정됨.
- 10월 생산자물가는 서비스부문이 하락하였으나 교통세 인상의 영향으로 석유류가 크게 상승하여 전월대비 0.1%, 전년 동월대비 11.7% 상승.
- 농축수산물물은 전월대비 2.9% 하락하였고 전년 동월대비 11.8% 상승
- 공산품은 전월대비 0.5% 전년 동월대비 13.9% 상승하였고, 석유류는 전월대비 5.9% 전년 동월대비 43.1% 상승하였으며, 서비스요금은 전월대비 0.3% 하락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6.5% 상승.

#### 품목별 생산자 물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3.6	2.5	2.2	-0.9	1.9	-1.1	-0.9	4.4	11.5	13.4
광 산 품	1.0	0.7	1.7	2.3	1.5	4.8	8.9	7.5	6.9	8.5
공 산 품	3.0	3.1	2.0	5.2	3.4	17.2	16.7	14.6	13.8	12.7
전력수도가스	0.5	2.2	7.0	9.3	4.8	18.5	17.2	12.0	10.2	10.2
원 재 료	11.6	9.0	4.4	13.6	9.7	49.8	19.8	14.2	15.0	7.9
중 간 재	3.1	5.0	4.2	12.1	6.1	37.9	27.3	21.7	21.0	16.9
최 종 재	4.2	4.0	2.1	4.1	3.6	16.8	13.6	12.5	14.8	13.2
전 체	3.7	3.5	2.8	5.2	3.9	14.4	13.9	12.0	11.7	11.0

자료: 한국은행, KDI, 재정경제부,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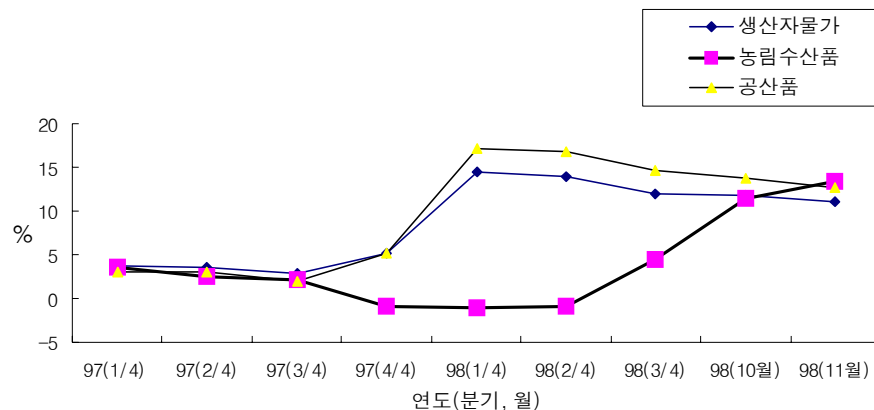
### 주요품목별 생산자물가 변동 추이

(전기대비변동률, %)

	1998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3.9	1.4	5.8	△2.8	0.7
광 산 품	2.8	3.7	△0.3	0.2	1.5
공 산 품	12.7	△0.2	△2.0	0.4	△0.3
전 체	10.6	0	△1.3	0.1	△0.2

자료: 한국은행, KDI, 재정경제부,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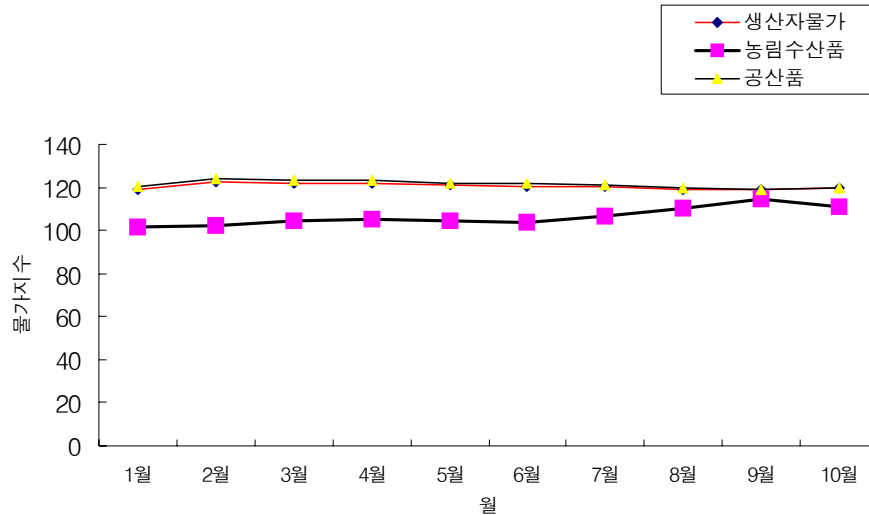
품목별 생산자물가(전년동기, 동월대비)



□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에 비해 7.0% 상승하였지만 1/4와 2/4분기보다 상승폭이 둔화됨.

- 상품, 공공서비스, 공업제품의 소비자물가는 하락세.
- 9월 소비자물가는 수해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가 인상되었으나, 개인서비스요금, 집세 등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0.4% 상승, 전년 동월대비 전월과 같은 6.9% 상승함.

주요품목 생산자물가 월별변동추이



- 3/4분기 농림수산물 소비자물가는 8월의 수해에 따른 공급부족으로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였다가 9월에 상추, 포도 등은 하락하고, 무, 배추, 파 등이 크게 상승하여 전월대비 2.0%, 전년 동월대비 6.9% 상승.
- 4/4분기(10월, 11월)의 농림수산물 소비자물가는 3/4분기의 전년 동기 대비 5.3%상승에서 전년 동월대비 10월 9.0%, 11월에 8.3%로 대폭 상승하고, 상품의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확대됨에 따라 다른 품목의 하락과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10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가 인상되었으나, 개인서비스요금, 집세 등의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월대비 0.3% 상승에 그쳤으며, 전년 동월 대비 7.2% 상승함.
  - 농축수산물은 배추, 열무 등은 하락하였으나 시금치, 사과 등이 크게 상승하여 전월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9.0% 상승.
  - 공업제품은 원피스, 화장지 등이 하락하였으나 석유류 교통세의 인상으로 휘발유, 경유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1.3%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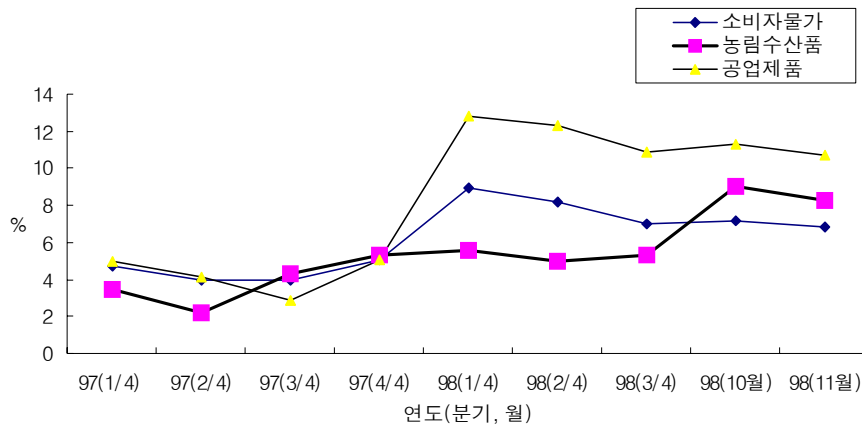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상 품	4.6	3.6	3.3	5.2	4.2	10.8	10.3	9.3	10.7	9.9
농림수산물	3.5	2.2	4.3	5.3	3.8	5.6	5.0	5.3	9.0	8.3
공 업 제 품	5.0	4.1	2.9	5.1	4.3	12.8	12.3	10.9	11.3	10.7
서 비 스	4.8	4.6	4.6	4.9	4.7	7.0	6.0	4.6	3.7	3.4
집 세	3.5	3.6	3.1	2.9	3.3	2.4	1.2	0.0	△1.0	△1.6
공공서비스	4.8	4.3	4.9	6.4	5.1	9.8	10.8	9.5	8.0	7.8
개인서비스	5.6	5.3	5.2	5.2	5.3	7.8	5.9	4.3	3.7	3.5
전 체	4.7	4.0	4.0	5.1	4.5	8.9	8.2	7.0	7.2	6.8

자료: KDI, 재정경제부, 경제전망.

품목별 소비자물가(전년동기, 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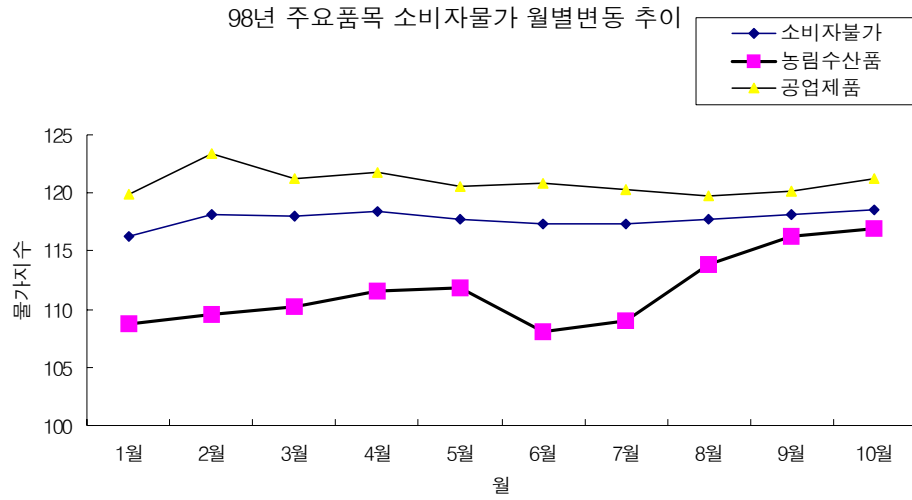


1998 주요품목별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

(전기대비 증가율, %)

	1998			
	1/4	2/4	3/4	10월
전 체	6.2	0	0.2	0.8
농림수산물	5.0	1.8	0.7	1.2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통계월보.



- 수출물가의 상승폭은 원화 환율 절상으로 2/4분기 33.5%에서 3/4분기 24.3%로 상승률이 둔화되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냄.
- 농림수산품의 수출물가 상승폭은 아직도 전년동기( $\Delta 0.3\%$ )에 비해 10.6%로 높지만, 금년 1/4분기와 2/4분기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대폭 둔화되어 하향안정 추세를 보임.

**품목별 수출물가 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7.0	2.1	$\Delta 0.3$	7.4	4.1	42.2	24.1	10.6	14.3	8.1
공 산 품	$\Delta 1.9$	6.0	4.0	18.5	6.7	66.3	33.7	24.5	27.0	16.5
원 자 재	$\Delta 9.2$	2.4	2.1	14.9	2.2	59.4	27.8	18.3	21.2	11.4
자 본 재	5.9	7.2	1.9	16.2	7.9	66.3	31.7	21.5	24.8	14.0
소 비 재	9.4	12.2	8.1	24.9	13.7	76.2	43.5	34.6	36.4	24.8
전 체	$\Delta 1.7$	6.0	3.9	18.4	6.6	65.9	33.5	24.3	26.8	16.4

자료: 한국은행.

- 수입물가(원화 기준)는 11월 중 원화 환율의 하향 안정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따라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15.3%로 크게 둔화되었음(전월비  $\Delta$ 3.9%).
- 원유, 비철금속류, 철강소재, 기계부품 및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원자재가격 상승률이 12.9%로 크게 둔화됨.
  - 자본재와 소비재도 환율과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품목별 수입물가 상승률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11월
농림수산물	4.1	3.5	$\Delta$ 2.3	11.8	4.2	40.8	24.3	20.2	20.6	11.1
공산품	4.6	7.9	5.4	17.8	9.0	58.3	35.4	26.2	28.8	19.4
원자재	9.3	9.7	5.6	18.0	10.7	55.8	32.7	22.7	24.2	12.9
자본재	1.9	4.7	1.7	12.7	5.3	47.5	30.2	26.4	29.9	23.8
소비재	3.6	6.8	0.3	8.9	4.8	39.7	30.5	27.7	33.0	21.9
전체	7.6	8.6	4.6	16.7	9.5	53.7	32.1	23.5	25.6	15.3

자료: 한국은행.



### 3. 소비

민간소비는 여전히 극심한 침체 상태에 있으나 최근 들어 증권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기미를 보임.

- 3/4분기중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이어 두 자리수( $\Delta 12\%$ )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2/4분기에 비해 1%의 감소세 둔화를 보임.
  - 특히 내구재와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의 감소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지출도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침.
  - 민간소비 급락은 임금하락 및 실업증가, 주가 및 지가 하락, 금융경색으로 인한 소비자 신용의 축소, 고용불안에 따른 심리위축 등에 기인.
  - 정부소비도 경상비 예산의 긴축운용 등으로 11.1% 감소.
- 최근의 소비관련지표에 의하면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등이 3/4분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
  - 도소매 판매의 경우 계절조정 후 전기대비로는 3/4분기 중 1%의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10월에도 9월 대비 2.8% 증가함.
    - 9월 중 도소매 판매는 경차 등의 판매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하여 전월( $\Delta 16.7\%$ )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
    - 도매부문은 기타식료품 8.7%, 수산물 13.0% 증가하였으나, 가정용기는  $\Delta 20.7\%$ , 금속광물 및 제1차금속  $\Delta 12.4\%$  등은 감소하여 전년 동월 대비 6.2% 감소하였음.

- 소매부문은 기타 종합소매 18.5%, 화장품 5.8%, 의약품 7.9% 증가했으나 백화점 26.5%, 음식료품 종합소매는 25.0% 감소하였음.
- 내수용 소비재출하는 전분기 대비 3/4분기에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 9월중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17.5% 감소함.
  - 부문별로 내구소비재(△26.2%)의 경우 승용차(△64.4%), 세탁기(△29.7%) 등은 감소하였으나, 휴대용 전화기(107.2%), 가스보일러(78.3%), 경승용차(32.6%) 등이 증가하여 전월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됨.
  - 비내구 소비재(△13.1%)도 남녀기성복 46.9%, 의약품 11.6% 감소한 반면에, 담배(10.8%), 등유(9.1%)등이 증가하여 감소세가 둔화됨.
- 10월중 소비재 수입은 경기침체, 고용불안 및 실업증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감소세가 계속되어 전년 동월 대비 47.3% 감소하여 3/4분기보다 소비재 수입의 감소폭이 큼.
- 최근의 소비관련지표에 의하면 도소매판매액, 소비재출하 등이 3/4분기 이후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 4/4분기에도 민간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최근의 소비 회복세는 금리 및 환율의 하향 안정추세 및 정부의 소비지출 활성화 조치, 경제전반에 대한 불확실성의 완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소비 동향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10월
민간소비	4.2	4.8	4.8	△1.0	3.1	△10.6	△13.0	△12.0	-
내구재	△1.4	4.4	5.9	△14.6	△1.4	△38.5	△47.4	△44.3	-
준내구재	4.2	3.8	2.2	△3.6	1.6	△18.0	△21.3	△20.4	-
비내구재	2.7	3.2	3.2	1.2	2.5	△8.2	△9.2	△8.3	-
서비스	6.1	6.4	6.3	4.4	5.8	1.9	0.1	0.2	-
정부소비	5.1	6.9	7.2	4.0	5.7	△4.3	△12.1	△11.1	-
도소매판매	2.5	4.6	5.7	△0.1	3.2	△10.4	△15.8	△15.3	△13.6
내수용 소비재출하	△3.5	△0.7	2.7	△4.3	△1.5	△19.7	△26.3	△23.4	△25.1
(내구소비재)	△3.5	10.9	16.4	△2.5	5.0	△25.7	△35.0	△34.2	△28.4
소비재수입(명목)	5.2	△5.1	△6.5	△20.9	△7.4	△40.6	△41.0	△45.9	△47.3

자료: KDI, 재정경제부, 경제전망.

- 전년 동기 대비 3/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 감소하여 2/4분기의 4.8% 감소율보다 현저히 감소 폭이 증가하였음.
  -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의 감소가 큼(가구당 평균 취업인원수 감소: 1.57명→1.47명).
  
- 전체적인 소비지출은 3/4분기에 감소폭이 확대되어 16.8% 감소하여 더욱 위축되는 추세를 보임.
  - 식료품 소비지출은 1/4분기에 비해 2/4분기에 감소폭이 약간 둔화되다가 3/4분기에 다시 감소폭이 20.2%로 커짐.
    - 곡류의 소비지출은 1/4분기에 △18.1%에서 2/4분기에 △10.8%, 3/4분기에 7.8%로 감소폭이 현저히 둔화됨.
  - 주거비 지출의 감소세도 3/4분기에 둔화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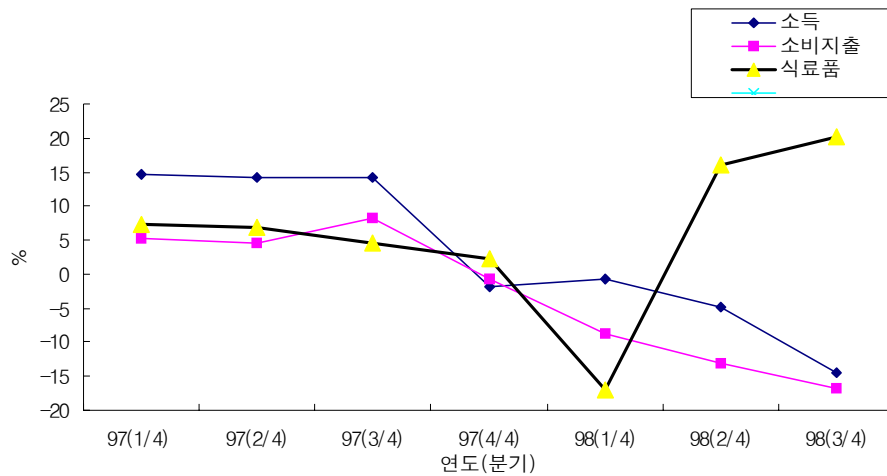
###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1997					1998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소득	14.7	14.3	14.2	△1.8	10.4	△0.6	△4.8	△14.4
소비지출	5.2	4.5	8.2	△0.8	4.3	△8.8	△13.2	△16.8
식료품	7.4	6.9	4.5	2.2	5.3	△17.0	△16.1	△20.2
곡류	△0.8	△3.3	△2.4	△0.3	△1.7	△18.1	△10.8	△7.8
주거	△12.2	△1.4	△6.7	9.4	△2.7	3.9	△10.4	△6.9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계수지변화추이(전년동기대비)



#### 4. 고용

2개월 연속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5.9% 감소함.

- 농림어업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0%(51천명) 증가하였으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제조업 취업자는 613천명(전년 동월 대비 △13.9%), SOC 및 기타 서비스업 취업자는 689천명(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하였지만 감소폭은 둔화됨.
  - 남자 경제활동인구는 성별로는 남자가 11,90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9천명(△5.0%) 감소함.
  - 여자 경제활동인구는 8,149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1천명(△7.2%) 감소하여 여자취업자의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 9월중 경제활동인구는 21,62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7천명(△0.7%) 감소하였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61.2%로 전년 동월(62.5%)보다 1.3% 감소함.
  
- 9월중 실업률과 실업자는 2개월 연속 감소.
  - 실업률은 전년 동월(2.2%)보다 5.1%p 증가한 7.3%(계절조정 8.4%)로 나타났지만 8월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실업자도 1,572천명으로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
  - 전월에 비해 실업자 및 실업률이 감소한 것은 추석수요 기대요인 및 공공 근로사업 확대실시 등에 따라 취업자가 186천명 증가하였기 때문임.

## 고용 활동

단위: 천명, %

	96년	97년	97.9월	98.9월
경제활동인구	21,188	21,604	21,779	21,622
(경제활동참가율)	(62.0)	(62.2)	(62.5)	(61.2)
취업자	20,764	21,048	21,310	20,050
·농림어업	2,405	2,324	2,556	2,607
·광공업	4,701	4,501	4,434	3,810
(제조업)	(4,677)	(4,475)	(4,404)	(3,791)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13,657	14,223	14,321	13,632
(건설업)	(1,967)	(2,004)	(2,058)	(1,546)
실업자	425	556	469	1,572
실업률(계절조정)	2.0	2.6	2.2(2.5)	7.3(8.4)

자료: 재정경제부.

## 취업자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천명)

	96년	97년	98년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체	387	284	△1,133	△1,195	△1,390	△1,444	△1,260
·농림어업	△136	△81	239	187	105	94	51
·광공업	△98	△200	△658	△682	△696	△685	△623
(제조업)	(△96)	(△202)	(△649)	(△672)	(△687)	(△676)	(△613)
·SOC 및기타	620	556	△715	△700	△800	△853	△689
(건설업)	(72)	(37)	(△465)	(△477)	(△528)	(△575)	(△512)

자료: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8. 11.

## 5. 경제 전망

1999년 중 금융시장의 안정과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 1998 경제전망은 모든 기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면서 최저  $\Delta 5.6\%$  성장에서  $\Delta 7.1\%$  성장으로 예측함.
  - 경제전망에서 국내기관과 국외기관 간의 큰 차이는 없음.
  
- 1999 경제전망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한 국내기관은 2개 기관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
  - 국외기관들은 IMF( $\Delta 1.0\%$ )와 노무라연구소( $\Delta 0.5\%$ )를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소 0.2%에서 최대 1.0%의 성장을 예측함.
    - 1분기( $\Delta 3.7\%$ ), 2분기( $\Delta 3.2\%$ ), 3분기(2.1%), 4분기(2.2%)의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3분기 이후에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
  - 국내기관들은 한국은행( $\Delta 1.6\%$ )과 대우경제연구소( $\Delta 0.7\%$ )만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비관적일 경우  $\Delta 1.8\%$ 가 될 것으로 예측함.
    - 한국개발연구원은 1999년도 경제성장은 수출증가보다는 소비증가(2.5%)와 설비투자(5.9%)증가 등 내수부문 호전으로 달성될 것으로 전망함.
    - 금융연구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소비와 투자의 활성화로 플러스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연구기관별 경제 전망

구분	기관명	경제성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흑자(억달러)	
		'98	'99	'98	'99	'98	'99	'98	'99
국내 기관	정 부	△5.0	2.0		1.6				
	한국개발연구원	△6.5	2.2	7.6		7.2	8.0	373	236
	한국은행	△6.4	△1.6						
	산업연구원	△6.6	2.1	7.8	1.6			393	
	한국금융연구원	△5.7	2.3		4.8		8.6		290
	삼성경제연구소	△6.4	2.2	8.1	5.2		8.7	357	
	대우경제연구소	△7.1	△0.7	7.5		7.4		396	
	LG경제연구소	△6.2	2.1	7.4	2.3	7.2	8.4	386	
	현대경제연구소	△5.5	0.3	7.7	2.1	7.0	8.0	395	243
한국경제연구원	△5.9	0.2	7.8	2.0			405	320	
국 외 기 관	WEFA	△6.0	0.6	7.2				410	
	IMF	△7.0	△1.0	8.5		7.5		390	
	OECD	△6.5	0.5		3.5		8.3		
	IBRD	△6.5	1.0						
	노무라연구소	△5.6	△0.5		3.2	9.0	8.9		287

주: 삼성경제연구소의 낙관적 예측과 비관적인 예측 중 낙관적 예측을 기준으로 함.



## IV. 농업경제 동향

### 1. 주요 품목별 가격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쌀 가격은 3/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가격과 차이가 확대되고 있음.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소득탄력성이 높은 배, 쇠고기 등이었음.

주요 농산물 가격 동향

단위: 원, %

품 목	단 위	1997 (4/4)	1998 (4/4)*	증감률	비 고
일 반 미	80Kg	141,944	155,497	9.5	-
찰	40Kg	102,174	98,811	△3.3	-
콩	35Kg	65,892	87,052	32.1	국산백태
팥	40Kg	103,882	147,249	41.7	국산적두
배 추	1Kg	247	461	86.6	고랭지
무	1개	280	456	62.8	고랭지
감 자	20Kg	15,959	21,110	32.3	-
고 구 마	15Kg	12,958	14,115	8.9	-
오 이	15Kg	22,445	24,032	7.1	다다기
마 늘	1접	17,611	21,342	21.2	한지
상 추	1Kg	1,296	2,122	63.7	치마
대 과	1Kg	891	975	9.4	-
건 고 추	60Kg	368,394	659,853	79.1	양건
사 과	15Kg	26,932	29,448	9.3	후지
배	15Kg	32,688	29,112	△10.9	신고
한 우	500Kg(천원)	2,136	1,990	△6.8	큰소(암)
성 돈	100Kg(천원)	153	172	12.4	-
쇠 고 기	500g	8,260	6,191	△16.4	-
돼지고기	500g	2,539	3,251	28.0	-
닭 고 기	1Kg	2,807	3,233	15.2	-
계 란	10개	930	1,077	1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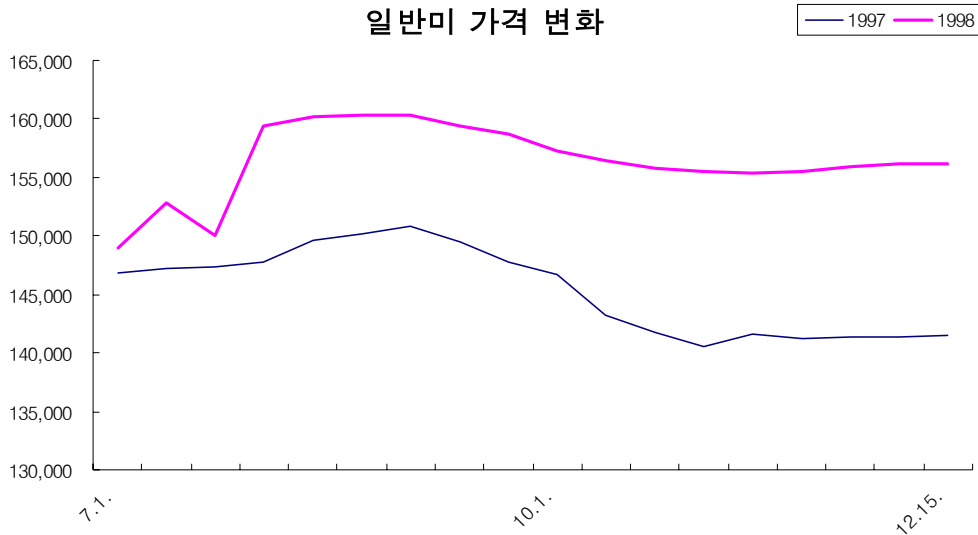
\* 10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자료임.

주: 도매가격 기준(한우와 성돈은 산지가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은 소비자 가격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축협중앙회.

## 식량작물

- 식량작물의 가격은 쌀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함. 찹쌀가격은 하락한 반면, 일반미, 콩, 팥, 감자 등의 가격이 상승함.
- 3/4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일반미 가격은 4/4분기에도 떨어지지 않은 채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전년도 가격과의 차이도 점차 더 벌어지고 있음. 이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일반미 가격 (80Kg)**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148,366	155,893	5.1
4/4 분기	141,944	155,497	9.5
전분기 대비 (%)	△4.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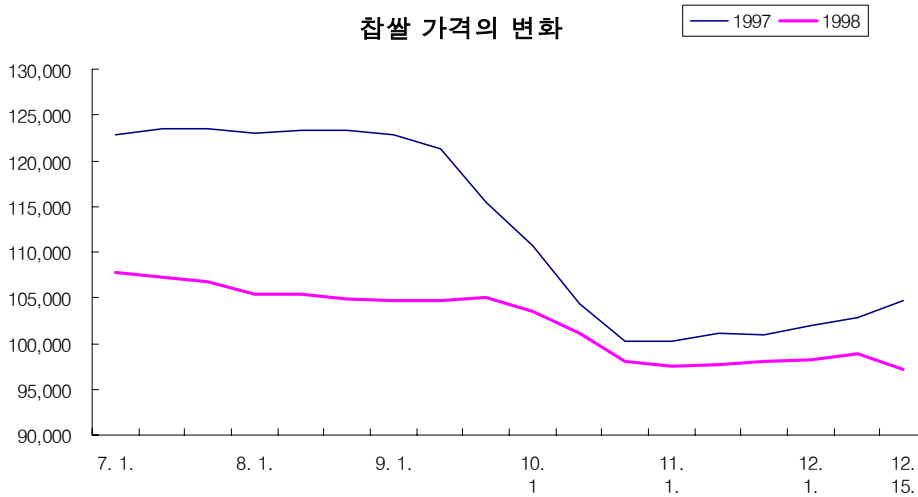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찹쌀 가격은 전반적인 하락세였으나, 4/4분기 들어서면서 전년도 수준에 근접해감. 전년동기 대비 3.4%, 전분기 대비 6.8% 하락함.

**찹쌀(40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121,250	105,544	△12.9
4/4 분기	102,174	98,811	△3.3
전분기 대비 (%)	△15.7	△6.4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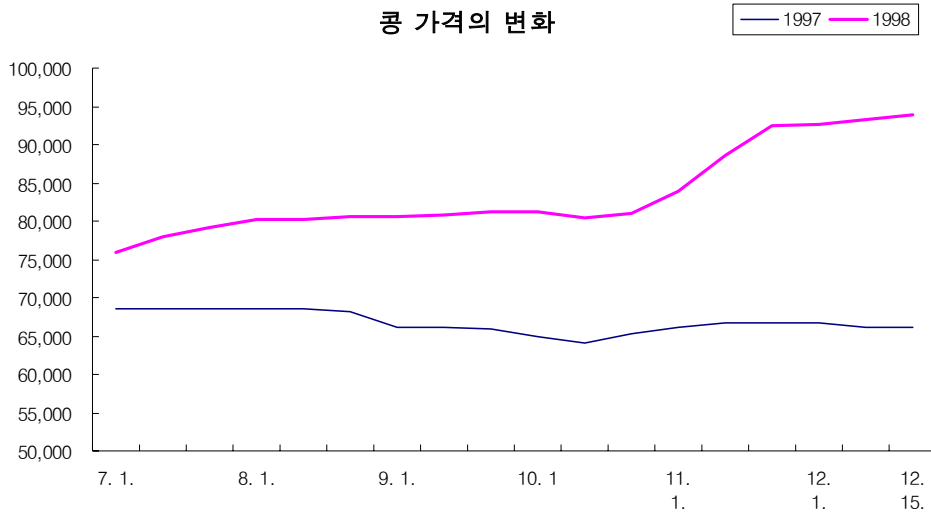


- 콩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전분기 대비 8.3% 상승하였으며, 연말로 가면서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있음.

**콩(국산 백태, 35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67,465	79,862	18.4
4/4 분기	65,892	87,052	32.1
전분기 대비 (%)	△2.3	9.0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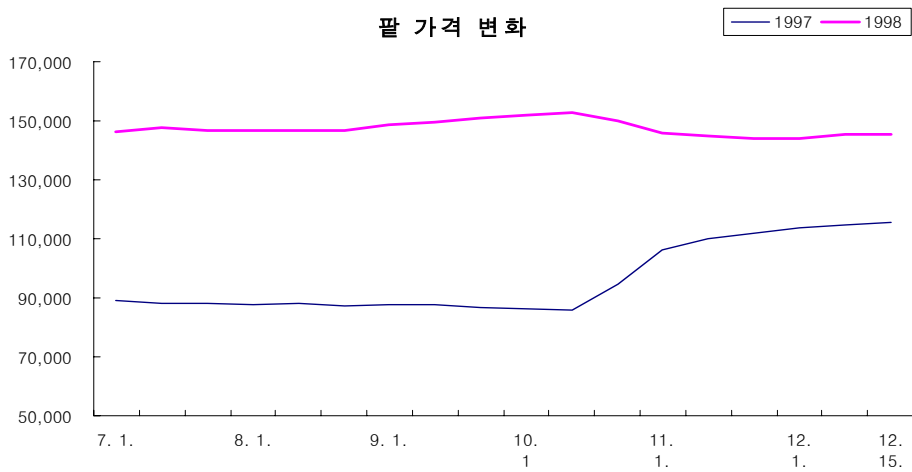


- 팔 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에 비해 높게 형성되었음.

### 팥(국산 적두, 40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87,592	148,250	69.2
4/4 분기	103,882	147,249	41.7
전분기 대비 (%)	18.6	△0.7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감자 가격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4분기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월 들어 상승세는 전년에 조금 주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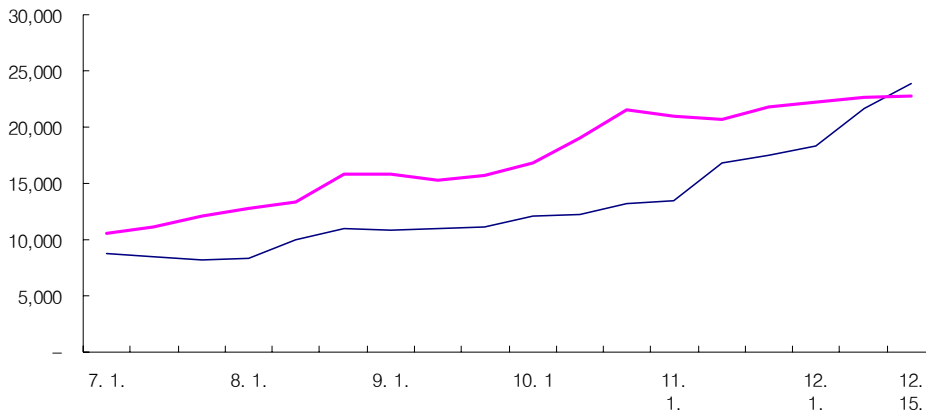
**감자(20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9,949	14,003	40.7
4/4 분기	15,959	21,110	32.3
전분기 대비 (%)	60.4	50.7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감자 가격 변화**

— 1997 — 1998



- 고구마 가격은 전년도에 비해 낮게 형성되어 4/4분기에도 하락세를 지속했지만, 하락폭은 전년에 비해 줄어들음. 전분기 대비 13.1% 하락 하였으나, 전년 동기대비 8.9% 상승함.

**고구마(15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16,472	16,234	△1.4
4/4 분기	12,958	14,115	8.9
전분기 대비 (%)	△21.3	△13.1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채소류

□ 홍수의 영향으로 3/4분기 급등했던 채소류 가격은 김장철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임.

- 3/4분기에 매우 높게 형성됐던 배추와 무 가격은 김장철이 끝나는 11월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함.

### 배추(고랭지, 1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525	806	53.5
4/4 분기	247	461	86.6
전분기 대비 (%)	△52.9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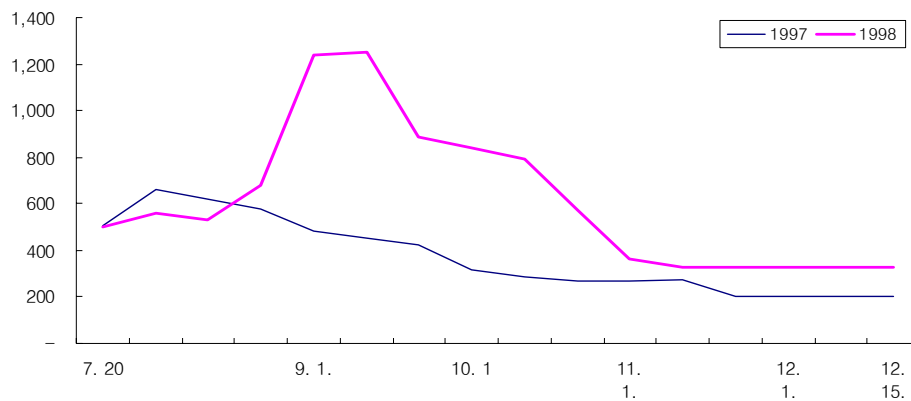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무(고랭지, 1개)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386	622	61.1
4/4 분기	280	456	62.8
전분기 대비 (%)	△27.5	△26.7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배추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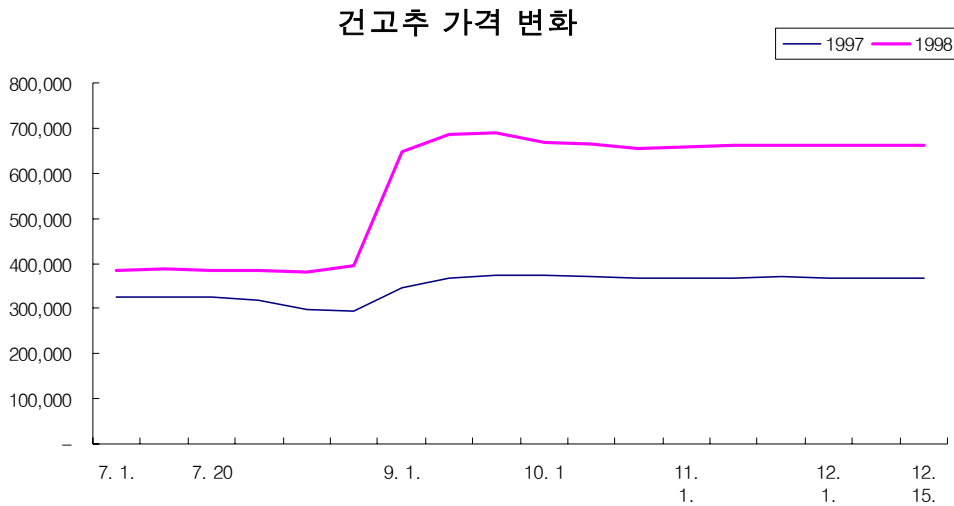


- 3/4분기부터 전년도보다 높게 형성되었던 마늘과 건고추의 가격이 계속 강세를 유지함. 9월에 급등했던 건고추 가격은 4/4분기에도 그대로 강세를 유지한 반면, 마늘은 4/4분기 들어서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음.

**건고추(양건, 60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327,984	482,391	47.1
4/4 분기	368,394	659,853	79.1
전분기 대비 (%)	12.3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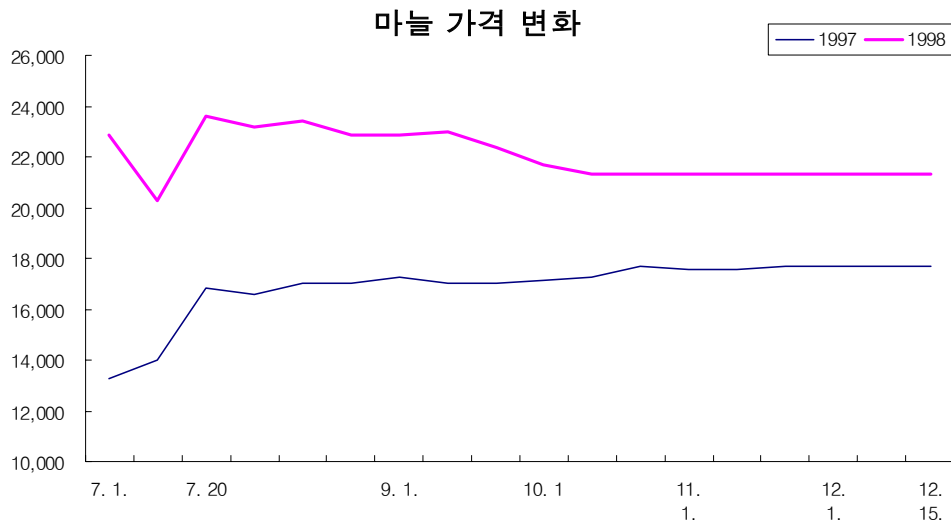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마늘(한지 1점)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16,733	22,912	36.9
4/4 분기	17,611	21,342	21.2
전분기 대비 (%)	5.2	△6.9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 3/4분기에 가격 변동폭이 심했던 오이는 4/4분기 들어 시설오이의 출하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 상추는 전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지만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3/4분기에 급등했던 대파는 4/4분기 들어 점차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함.

**오이(다다기 15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0,326	18,330	△9.8
4/4 분기	22,445	24,032	7.1
전분기 대비 (%)	10.4	31.1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상추(치마 1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343	2,731	16.6
4/4 분기	1,296	2,122	63.7
전분기 대비 (%)	△44.7	△22.3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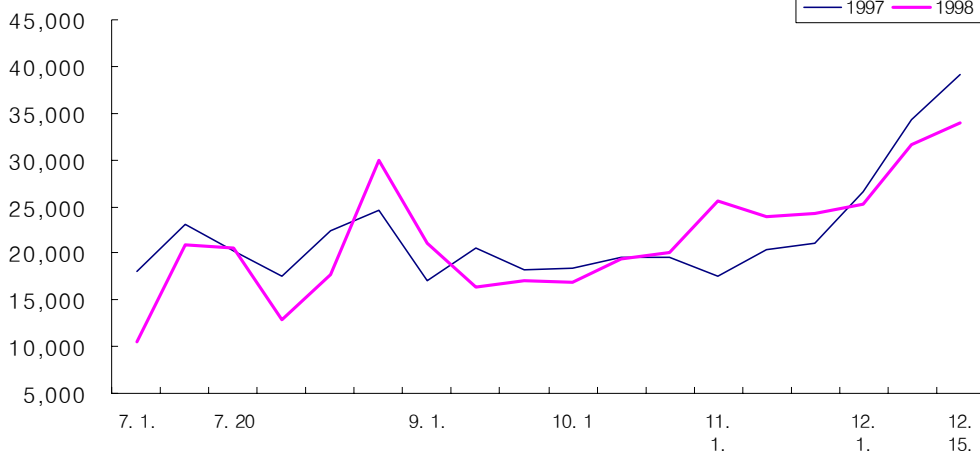


대 파(1kg) 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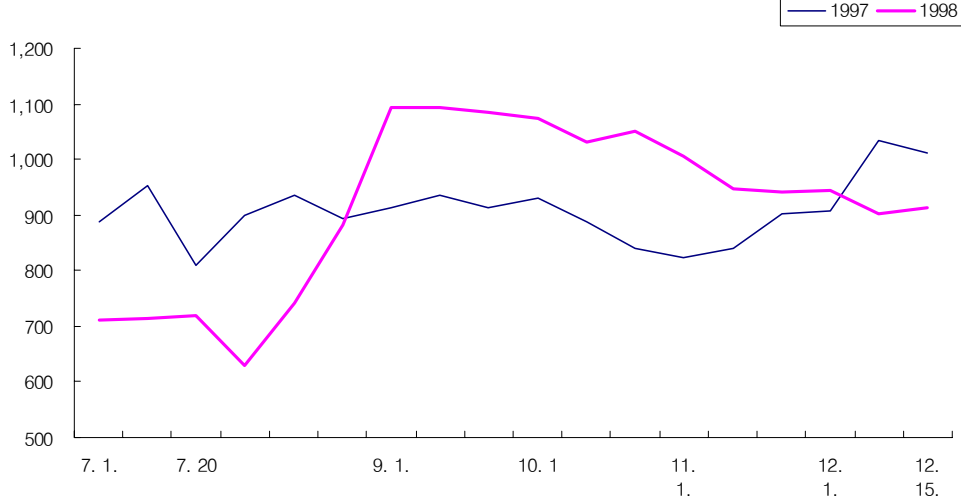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899	869	△3.3
4/4 분기	891	975	9.4
전분기 대비 (%)	△0.9	12.2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오이 가격 변화



대 파 가격 변화



과일류
-----

□ 3/4분기에 변동폭이 컸던 과일류는 4/4분기 들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으며, 점차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성과수 면적의 감소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배에 대한 대체효과에 힘입어 폭등세를 보였던 사과는 4/4분기 접어들어 출하량 증가와 감귤 출하로 인해 수요가 급락하면서 가격이 빠르게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

사과(후지 15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6,284	59,182	125.2
4/4 분기	26,932	29,448	9.3
전분기 대비 (%)	2.5	△50.2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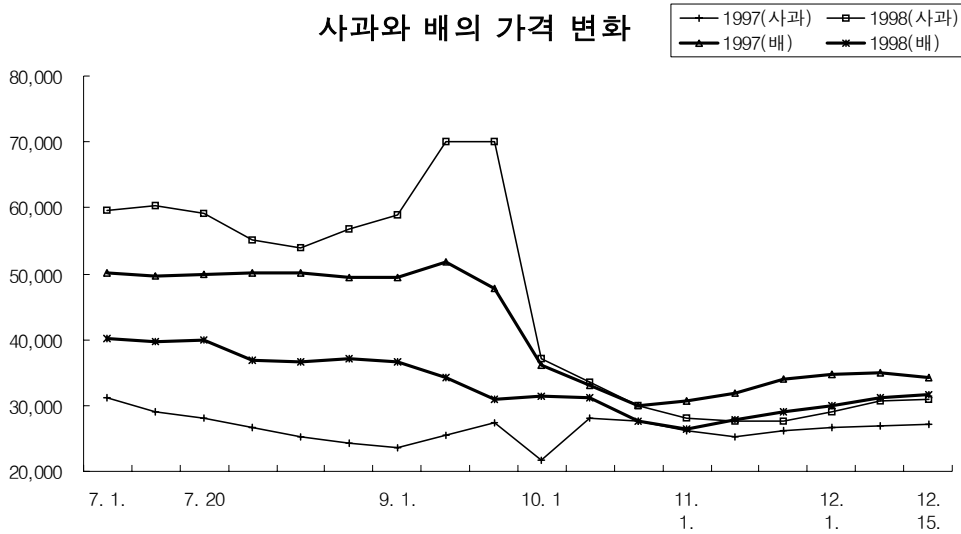
- 소비 위축과 생산량 증가 및 수출 물량 감소로 폭락했던 배 가격은 하락세가 계속 됐지만, 4/4분기 들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점차 지난해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배(신고 15K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48,830	36,474	△25.3
4/4 분기	32,688	29,112	△10.9
전분기 대비 (%)	△33.1	△20.2	

자료: 전국 도매시장 평균가격(농수산물유통공사).

사과와 배의 가격 변화



**축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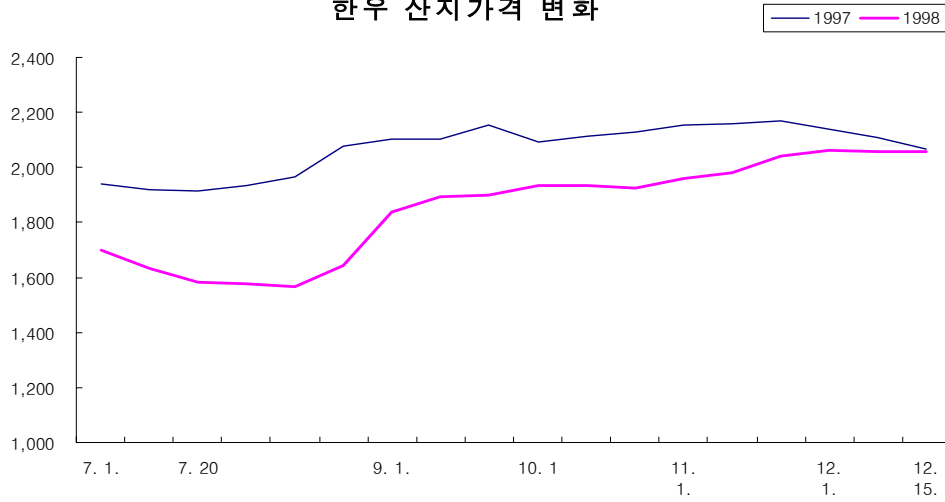
- 급속한 수요 위축으로 하락폭이 컸던 한우 가격은 4/4분기 들어 점차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수입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환율이 안정되면서 점차 안정되고 있음.
- 경기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로 급격히 하락했던 한우 가격은 9월부터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4/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2월 중순에는 전년도 수준까지 상승함.

한우(500Kg, 천원) 산지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024	1,715	△15.3
4/4 분기	2,136	1,990	△6.8
전분기 대비 (%)	5.5	16.0	

자료: 축협중앙회.

한우 산지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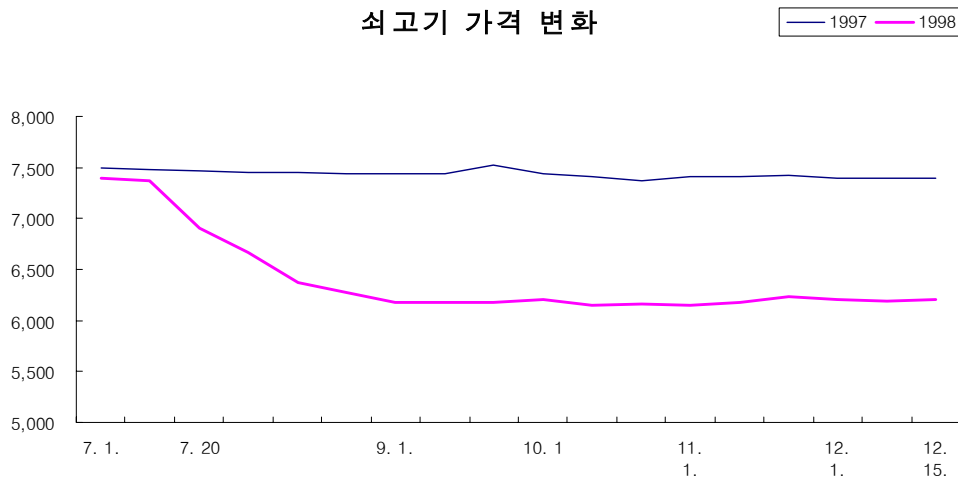
○ 3/4분기 들어 처음으로 6,000원대에 진입한 쇠고기 가격은 4/4분기에  
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함.

쇠고기(500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7,463	6,563	△12.1
4/4 분기	7,404	6,191	△16.4
전분기 대비 (%)	△0.8	△5.7	

자료: 축협중앙회.

쇠고기 가격 변화



- 3/4분기에 전년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10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던 돼지 산지가격은 11월 들어 출하두수 감소 및 일본 수출물량 증가로 국내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돼지고기의 소비지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음.

성돈(100Kg, 천원)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181	177	△2.2
4/4 분기	153	172	12.4
전분기 대비 (%)	△15.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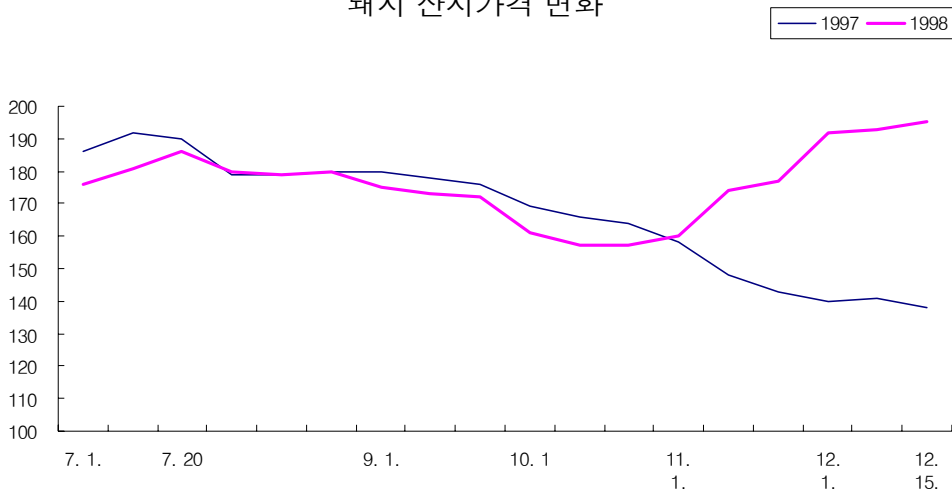
자료: 축협중앙회.

돼지고기(500g) 가격 변화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613	2,671	2.2
4/4 분기	2,539	3,251	28.0
전분기 대비 (%)	△2.8	21.7	

자료: 축협중앙회.

돼지 산지가격 변화



- 닭고기와 계란은 모두 작년보다 일정 수준 높은 가격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수준에서 3/4분기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함.
  - 9월 들어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한 계란 가격은 4/4분기에는 전년도보다 15.8% 상승한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임.

#### 닭고기 가격 (1Kg, 원)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2,830	3,221	13.8
4/4 분기	2,807	3,233	15.2
전분기 대비 (%)	△0.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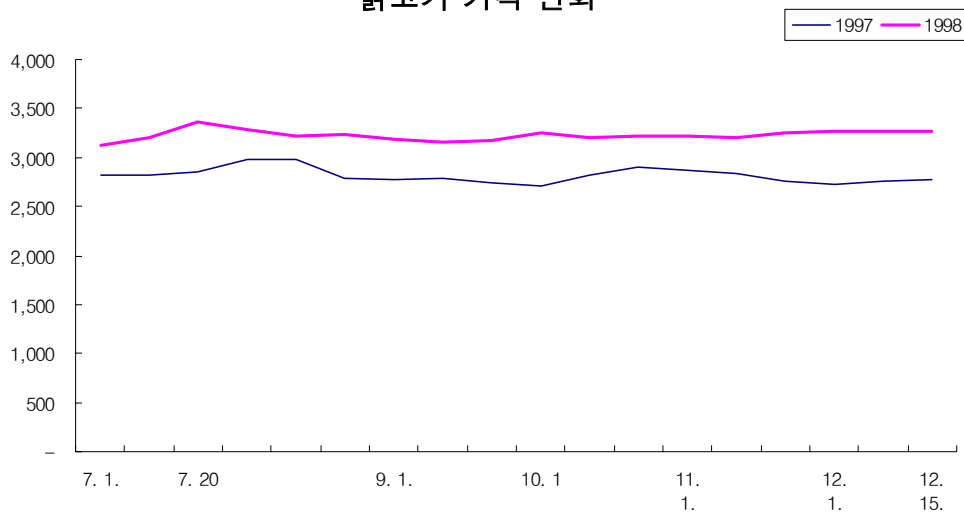
자료: 축협중앙회.

#### 계란 가격 (10개, 원)

	1997	1998	전년 동기 대비 (%)
3/4 분기	733	914	24.7
4/4 분기	930	1,077	15.8
전분기 대비 (%)	26.9	17.8	

자료: 축협중앙회.

#### 닭고기 가격 변화



## 2. 농산물 수출입

농산물 수출은 8.4% 감소한 반면 수입은 39.0% 감소하여 수입역조 현상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며, 3/4분기에 들어 크게 확대됐던 수출 감소 폭도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농산물 수출은 엔화 가치 및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의 하락으로 달러 표시 수출액은 수출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감소함. 그러나 4/4분기 들어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
- 물량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증가함.  
물량 기준: 1,034.5(1997년 1~10월) --> 1,185.6천톤(1998년 1~10월)
- 돼지고기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생산이 증가한 채소류도 일본의 수입 수요 증가에 더불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화훼류도 백합과 장미를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음.
- 수출량이 급증한 김치는 업체간 과당경쟁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 및 엔화가치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조금 증가함.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한 가공식품과 과실류 수출도 동남아시아의 경기 침체로 부진한 상태임.

### 주요 농산물 수출 실적

단위: 백만 달러

	1997. 1~10.	1998. 1~10.	증감률(%)
농림산물 합계	1,424.4	1,304.6	△8.4
- 채 소 류	63.7	72.1	13.2
- 과 실 류	52.1	29.1	△44.1
- 화 훼 류	27.5	8.5	108.1
- 인 삼 류	50.9	47.8	△6.0
- 축 산 물	261.0	305.3	17.0
- 임 산 물	192.0	189.5	△1.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8월에 급감했던 수출증가율은 환율 상승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9월 이후 감소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수출 증가율 (%)

	1/4 분기	2/4 분기	7월	8월	9월	10월
수출증가율	△4.3	4.1	△4.1	△29.0	△10.5	△11.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수입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국내경기 침체 및 환율 상승으로 전품목에 걸쳐 크게 감소함. 특히, 국내 건설부문의 극심한 경기 위축으로 임산물의 수입이 크게 감소함.
  - 곡류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수입액은 13.9% 감소함.
    - 곡류 중에서는 밀가루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 및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으로 밀 수입만 12.1% 증가함.
    - 옥수수 수입량은 15.2%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27.0% 감소함.
  - 대두는 국제 가격 상승 및 국내 수요 감소로 수입량이 크게 줄었으며, 축산물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입액이 크게 감소함.
    - 대두 수입량은 16.0%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29.8% 감소함.
    - 축산물 수입도 크게 줄어 쇠고기 수입액은 51.3%, 돼지고기 수입액은 48.8% 감소함. 그러나 쇠고기는 수입쿼터량의 상당 부분이 수입이 안된 상태로서 연말에 대량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음.
  - 과실류는 국내 과실의 출하 증가와 수입과일에 대한 수요 감소로 수입액이 크게 감소함.
    - 오렌지 수입액이 25.6% 감소하였고, 바나나는 42.7% 감소함.



### 주요 농산물 수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1997. 1~10	1998. 1~10	증감률(%)
농림산물 합계	8,613.7	5,256.2	△39.0
- 곡 류	1,626.2	1,400.7	△13.9
- 두 류	444.4	310.3	△30.2
- 서 류	97.2	69.6	△28.3
- 박 류	423.4	343.0	△19.0
- 채유종실	89.8	60.4	△32.7
- 과 실 류	318.4	169.4	△46.8
- 채 소 류	144.8	106.4	△26.5
- 화 훼 류	26.9	10.6	△60.6
- 축 산 물	1,088.4	549.2	△49.5
- 임 산 물	2,138.5	776.6	△63.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무역수지는 수출이 1억 1,950만 달러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33억 5750만 달러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2억 달러 개선됨.

### 농산물 무역 수지

단위: 백만 달러

	1997. 1~10.	1998. 1~10.	증 감
수 출	1,424.1	1,304.6	△119.5
수 입	8,613.7	5,256.2	△3,357.5
무 역 수 지	△7,189.6	△3,951.6	3,238.0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 3. 농업인력 수급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8년 1월을 최저점으로 차츰 증가했다가 농한기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함. 귀농인구는 IMF 구제금융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농림업 취업자수는 1997년 12월 이후 급속히 줄어들었으나,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 그러나 7월 이후 농림업 취업자수도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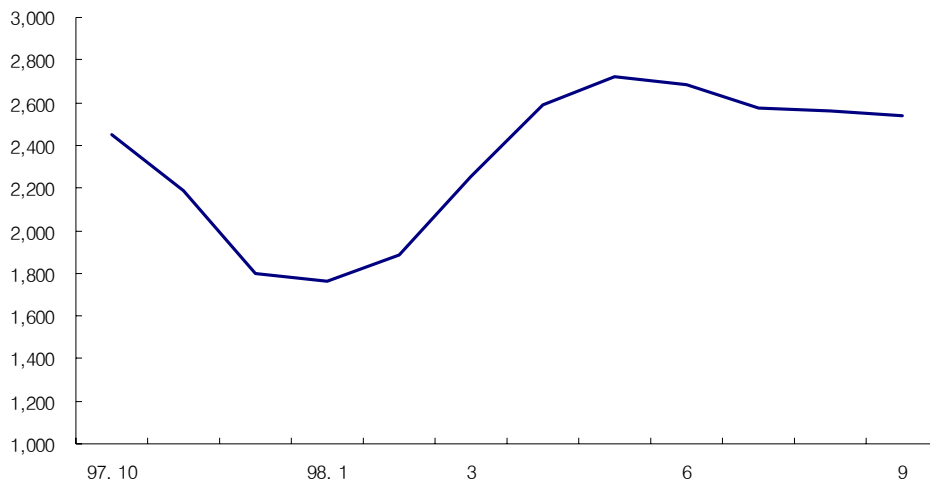
농림업 취업자수

단위: 천명

	1997년 12월	1998년 1월	3월	6월	9월
경제활동인구	21,340	20,645	21,270	21,712	21,622
취업자수(전체)	20,682	19,711	19,892	20,183	20,050
- 농림업	1,801	1,761	2,254	2,683	2,537

자료: 한국은행.

농림업 취업자수



□ 귀농인구는 1998년 들어 빠르게 증가하여 11월까지 귀농가구수는 5,967가구로 지난해 1,823가구보다 약 3.3배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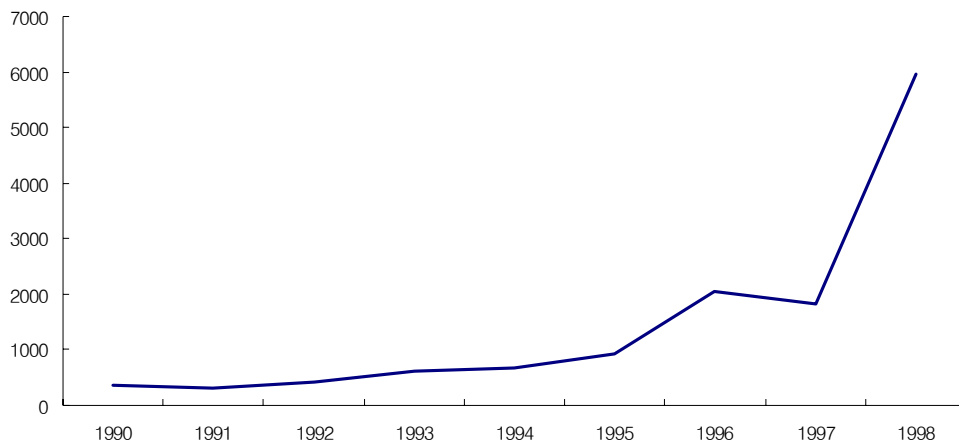
○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빠르게 증가했던 귀농은 농한기로 접어들면서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 귀농 동향

	1990	1995	1996	1997	1998(1~11월)
귀농가구수	371	922	2,060	1,823	5,967

자료: 농림부 농촌인력과.

#### 귀농 추이



#### 4. 농가 교역조건

- 농가 판매가격지수는 3/4분기 들어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상승하였다가 4/4분기 들어서면서 감소세로 돌아섬.
- 축산물과 기타 농산물 가격지수가 각각 10.3%, 1.6% 하락하였지만, 청과물과 곡물이 각각 9.1%, 7.1% 상승하여 총지수는 2.3% 상승함.

농가 판매가격지수 동향

	1997. 10	1998. 10	전년 대비 변동률(%)
총 지 수	102.6	105.0	2.3
곡 물	116.2	124.5	7.1
청 과 물	101.9	111.2	9.1
축 산 물	88.4	79.3	△10.3
기타 농산물	108.8	107.1	△1.6

자료: 농협중앙회.

- 농가 구입가격지수는 비료,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1% 포인트 상승함.
- 농촌임료금이 3.8%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원 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농업용품 및 가계용품의 가격이 크게 올라, 총 지수는 10.1% 상승함.

농가 구입가격지수 동향

	1997. 7	1998. 10	전년 대비 변동률(%)
총 지 수	106.8	117.6	10.1
가 계 용 품	112.0	118.9	6.2
농 업 용 품	99.1	117.8	18.9
농촌임료금	111.2	107.0	△3.8

자료: 농협중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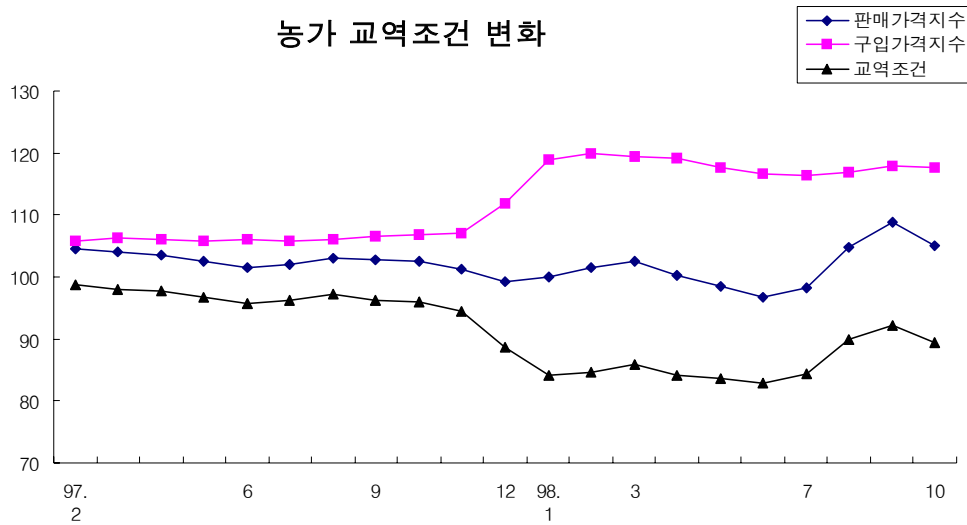
- 지난해 11월 이후 구입가격지수는 급격히 상승한 반면, 판매가격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 교역조건은 크게 악화됨.
- 3/4분기에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잠시 호전되었다가 10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전년 동월 대비 7.0% 악화됨.

농가 교역조건 동향

	1997. 10	1998. 10	전년 대비 변동률(%)
농가교역조건	96.1	89.3	△7.0
판매가격지수	102.6	105.0	2.3
구입가격지수	106.8	117.6	10.1

자료: 농협중앙회.

농가 교역조건 변화



## 일본의 쌀 조기 관세화 결정과 향후 과제

### 1. 쌀 조기관세화의 결정

#### 1.1. 쌀 조기관세화 합의

- 일본은 12월 17일, 농림성·자민당·농협 등 3자 합의로 쌀의 조기관세화를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 쌀조기관세화에 대하여 3자간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관세화 시기 : 1999년 4월 1일
  - 관세 설정방식 : 종량세
  - 관세 부과액 : 1999년           351.17엔/kg  
                                  2000년이후   341.00엔/kg
  - MMA수입미는 국영무역을 유지
- 일본은 국익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고, 쌀은 국민의 주식이고 도작은 일본농업의 基幹이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 ① 차기협상에서 농업의 다면적 기능과 식량안전보장의 중요성, 수출국·수입국의 균형 확보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부·여당·농업단체 등 3자는 일체가 되어 협상시에 구체적 방안을 수립하여 행동할 것.
  - ② 새로운 농업기본법 제정과 시책의 구체화를 서두르는 동시에 차기협상에서는 이러한 시책이 국제 규율로 정당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③ 국내 농업생산을 기본으로 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작을 비롯하여 맥류·대두·사료작물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여 만전의 정책을 확립할 것.
  - ④ 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서 수입미 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할 것.

## 1.2. 쌀 조기관세화 결정과정

- 11월 26일 자민당, 「농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조기관세화 검토시작
- 11월 26일 농협, 「농업대책추진본부위원회」에서 조기관세화 검토시작
- 12월 14일 농협, 지방조직의 관세화에 대한 의견집약(과반수 이상 지지)
- 12월 14일 농림성, 조기관세화 방침 결정
- 12월 14일 농림성·자민당·농협, 관세화 결정은 3자 협의 하에 하기로 합의
- 12월 15일 농협, 농업대책추진본부위원회 개최, 결정은 회장에 일임
- 12월 16일 농협이사회, 조건부 관세화 결정
- 12월 16일 자민당, 관세화 결정
- 12월 17일 농림성·자민당·농협, 조기관세화 합의
- 12월 18일 쌀 관세화 각의 결정
- 12월 21일 WTO사무국 통보

## 2. 조기관세화의 결정배경

- 일본은 당초 차기협상에서 MMA의 개정을 검토한 바 있다. WTO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가맹국 3분의 2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나, 개도국을 포함하여 수출을 지향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WTO협정의 개정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다.
- 현재 WTO가맹국 132개국 중, 특례조치인 MMA를 적용받고 있는 국가는 일본·한국·필리핀·이스라엘 등 4개국뿐이며, 이러한 여건에서 포괄적 관세화 원칙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 조기관세화를 단행한 배경에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WTO체제하에서 단행하고 있는 농정개혁이 쌀 관세화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1994년 이후 계속되는 풍작과 MMA수입미의 증가로 인하여 쌀재고가 급증함에 따라 재고문제가 농정의 최대 과제로 등장하면서, 재고처리에 조기관세화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 2.1. 농정개혁의 방향과 쌀 관세화

#### (1) 신규 시책의 추진

- 최근의 농정개혁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시책에서 살펴보면, 가격변동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이 관세화를 상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첫째, 소득안정화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작경영안정대책」을 비롯하여 맥류가격정책 등 몇 가지 시책에서 이러한 점을 엿볼 수 있다.
  - 둘째,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국민 일반의 부담으로 농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산간지역의 다락논 보전 직불제」를 실시하고, 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실시하기로 결



정하고 있다.

## (2) 신농업기본법 제정검토

- 신농업기본법 답신에서는 식량안보정책의 도입, 중산간지역 직불제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과 생명의 안전과 안심을 궁극적인 기본법의 목표로 설정하고, 농업·농촌은 단순한 생산 활동만이 아니라 생활과 생명의 근간을 형성한다는 이념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본법은 첫째 국내생산을 기본으로 한 식료안전보장을 확립하고, 둘째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면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2가지 점을 중시하고 있다.
- 이러한 농업보호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차기협상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쌀 문제를 조기관세화라는 방식으로 사전에 해결할 필요성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 (3) 농정개혁대강 확정

- 농림성과 자민당은 지난 12월 8일, 전후 일본의 농정방향을 전환하는 「농정개혁대강」과 2003년까지 실행하는 「농정개혁 프로그램」을 확정하였다.
- 농정개혁대강에는 신농업기본법의 이념인 「식량안전보장의 확립」과 「농업·농촌의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WTO차기협상에서 일본 주장의 근거·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농산물수입을 적절히 억제하는 국경조치, 국내생산의 유지·확대에 불가결한 국내 농업보호수준의 확보를 중심적인 협상 사항으로 설정,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 국경조치는 관세인하, MMA확대수준의 억제, SSG 및 국영무역의 유지 등
  - 국내지지는 AMS의 감축수준의 억제, Green Box의 범위확대, 다면적

### 가능의 명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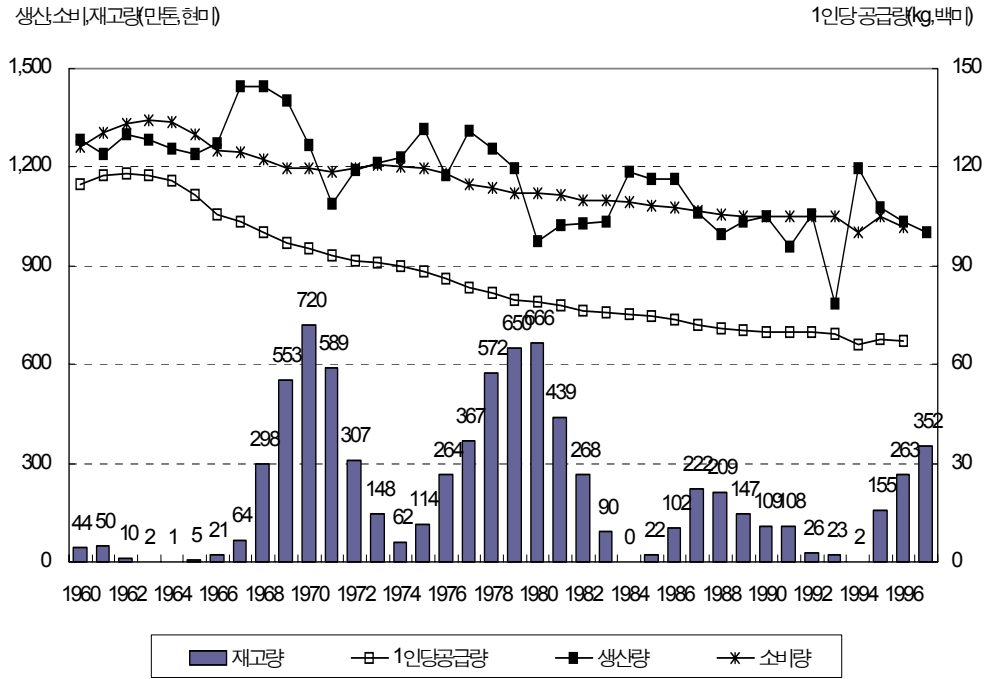
- 쌀 관세화에 대해서는 고관세 유지, 중산간지역 직불제의 Green Box 유지. 소득·경영안정대책은 품목별로 도입하기 때문에 감축대상으로 분류되거나 농정개혁대강에서는 경영전체로 파악하여 경영안정조치의 도입을 제기하고 있어 Green Box요건에 맞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2. 쌀 재고문제의 대두

- 최근 4년 연속 풍작과 MMA수입 등으로 재고미 처리가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향후 쌀 수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조기관세화」로 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이 안고있는 쌀 문제는 재고 누증, 생산조정면적 확대, 가격하락으로 요약된다. 1998년 10월 현재 재고량이 354만톤으로 늘어나고 있는 등, 전후 「제3차 쌀 과잉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 이러한 가운데 생산조정면적은 점점 확대되어 1998년에는 96만ha에 달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여 1998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한편, MMA에 의한 수입미는 1996년 43만톤이 수입된 이래 매년 0.8%씩 증가하여 1999년에는 68만톤이 수입될 계획이다.
  - 1998년 현재 MMA수입미의 재고는 사료용 비축 19만톤과 1999년 11월 23만톤 등 42만톤에 달하고 있다.
- 이러한 공급과잉을 반영하여 정부미가격을 1986년 이후 인하하고 있으나, 자주유통미 가격은 1994년 이후 대폭 하락하고 있다.
  - MMA는 국영무역에 의하여 전량 국가가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 가격은 대폭 하락하는 등, 생산자도 더 이상 MMA의 계속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관세화로 전환한 배경이라

고 할 수 있다.

### 쌀 수급 및 재고량 추이



### 1999미곡년도의 쌀 수급전망

단위: 만톤, 현미

	전체수급	계획유통미		
		자주유통미	정부미	합계
1998년 10월말 재고량	354	47	307	354
1998년산 생산량	896			
계획출하량		522	30	552
MMA	68	-	68	68
총공급량	1,318	569	405	974
주식용 수요량	955	511	100	611
가공용 수요량	92	24	68	92
총수요량	1,047	535	168	703
1999년 10월말 재고량	271	34	237	271
생산조정면적(만ha)	96			

자료 : 식량청

- 주 : (1)주식용 소비량에는 주식용 외에 자주유통미로 공급되는 양조용쌀 및 찰쌀 등을 포함, 가공용 소비량에는 국제기관 및 식량부족국가에 대한 원조미를 포함.  
 (2)1998년 10월말 및 1999년 10월말 현재 재고량에는 MMA 10만톤을 포함함.  
 (3)1999년산 정부미가격은 1998년산보다 1.7%인하한 15,528엔(현미60kg)으로 결정

### MMA수입미의 수급 동향

단위 : 만톤, 현미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전년이월	0	31	10	10
MMA수입량	43	51	60	68
공급합계	43	82	70	78
가공용	12	28	19	
원조용	-	12	24	
주식용	1	3	4	
수요합계	13	43	47	
차년이월	31	39	23	
비고		19 사료용비축 10 원조용	13 원조용	

주 : (1)MMA수입미 이외에, 주식용으로 전환된 MMA수입미를 대체하여 주식용 이외로 전환된 국내산 쌀도 포함.

(2)미곡년도 기준임.

### 정부미 및 자주유통미 가격의 추이

단위 : 엔/현미 60kg, %

	매입가격	전년대비 증감률	매도가격	전년대비 증감률	자주유통미 입찰가격	전년대비 증감률
1985	18,668	—	18,598	1.48		
1986	18,668	—	18,598	—		
1987	17,557	▲5.95	18,130	▲2.50		
1988	16,743	▲4.60	18,396	1.5		
1989	16,743	—	18,396	—		
1990	16,500	▲1.50	18,203	▲1.00	20,814	
1991	16,392	▲0.65	18,123	▲0.44	21,907	5.25
1992	16,392	—	18,123	—	21,990	3.79
1993	16,392	—	18,123	—	22,760	3.50
1994	16,392	—	18,123	—	21,367	▲ 6.12
1995	16,392	—	18,123	—	20,204	▲ 5.44
1996	16,392	—	18,101	▲0.10	19,806	▲ 2.87
1997	16,217	▲1.10	17,831	▲1.50	17,625	▲11.01
1998	15,805	▲2.50	16,806	▲1.04		
1999	15,528	▲1.75				

주 : (1)정부미가격은 1~5류, 1·2등급의 평균가격임.

(2)자주유통미가격은 연평균가격이며, 단지 1993년은 연도초기 가격임.

### 3. 조기관세화의 효과

#### 3.1. 농업협정상의 선택 대안

- 현행 WTO농업협정에서 쌀 특례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선택할 수 대안은 다음의 4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 먼저 특례조치의 기한만료인 2001년에 특례조치의 계속, 또는 관세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다. 어느 경우든 MMA 8%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만약 2000년 차기협상에서 MMA계속 여부가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관세화로 전환되고, MMA 8%를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조기관세화의 경우는 특례조치의 기한만료 이전인 1999년 또는 2000년에 관세화를 단행하는 것으로서 MMA 확대를 감소하거나 고율관세를

설정할 수 있다.

- 만약 일본이 1999년 4월부터 관세화하는 경우는, ①2000년도의 최종 MMA수입량을 68만 2000톤으로 줄여 현행 예정보다 7만 6000톤을 감소할 수 있으며, ②2001년 이후 CMA의 기준도 68만톤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③1,000%정도의 고율 관세를 설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3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농업협정상의 선택대안

대안	협상시기	이행시기	효과·조건
(1) 특례조치 계속	2000년	2001년 4월	○ MMA 확대 (추가적·수용가능한 양허)
(2) 2001년 관세화	2000년	2001년 4월	○ MMA 8.0%유지+관세화
(3) 2000년 관세화	1999년말	2000년 4월	○ MMA 감소(7.6%유지) ○ 고율관세 설정가능
(4) 1999년 관세화	1998년말	1999년 4월	○ MMA 감소(7.2%유지) ○ 고율관세 설정가능

## 3.2. 조기관세화의 효과

### (1) MMA수입량의 감소

- 일본은 쌀 관세화 특례조치에 의해 1995년 국내소비의 4%에 상당하는 37만 9000톤을 수입, 그 후 매년 0.8%씩 증가, 2000년에는 75만 8000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약속한 바 있다.
- 특례조치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는 경우는 MMA증가율은 0.8%에서 0.4%로 감소한다<sup>1)</sup>.
  - 1999년 4월부터 관세화로 전환 한다면, 1999년의 MMA수입량은 68만 2000톤에서 64만 4000톤으로 3만 8000톤 감소, 2000년에는 75만 8000

1) 농업협정 부속서5 SectionA 2항

톤에서 68만 2000톤으로 7만 6000톤 감소하며, 또 2001년부터 CMA가 68만 2000톤으로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

- 따라서 쌀을 조기관세화함으로써 감소하는 MMA수입량은 1999년 3만 8000톤, 2000년 7만 6000톤, 2001년 이후는 매년 7만 6000톤에 달하는 규모로서, 현재의 재고 수준을 감안한다면 크다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관세화 특례조치 종료시기별 MMA수입량

단위 : 만톤, 현미기준

	1년째 (1995)	2년째 (1996)	3년째 (1997)	4년째 (1998)	5년째 (1999)	6년째 (2000)
현행	39.7	45.5	53.1	60.6	68.2	75.8
1999년 4월 관세화	39.7	45.5	53.1	60.6	64.4 (-3.8)	68.2 (-7.6)
2000년 4월 관세화	39.7	45.5	53.1	60.6	68.2	72.0 (-3.8)

주 : (1) ( )내는 현행 MMA와의 차이

(2) 관세화한 연도부터는 MMA 증가율이 0.8%에서 0.4%로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산

## (2) 고율 관세상당치의 설정

### (가) 관세상당치의 설정가능수준

- 조기관세화함에 따라 1986-88년을 기준년도로 국내외 가격차를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관세율을 설정, 이를 근거로 6년간에 15%를 삭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관세 수준을 일본 독자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2)</sup>. 이 경우, 일본이 설정할 수 있는 기준 관세수준은 최대 1300% 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WTO차기교섭이 본격화되지 않는 현단계에서는 1000%이상의 관세율을

2) 농업협정 부속서5의 부록

설정하여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한편, 고율 관세에 대해 미국 등이 반발한다고 해도 차기협상시의 관세율 협상은 이 고율 관세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 고율의 관세상당치에 대해서는 과연 1000% 수준의 설정이 가능한가, 또 종가세와 종량세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관심이 있다.

#### (나) 관세상당치의 산산

- 관세상당치 설정근거는 WTO농업협정 부속서 5의 부록, 즉 「부속서 5의 6항 및 10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목적을 위한 관세상당치의 산정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 이 규정에 의하면, 1986-88년의 평균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액을 근거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국제가격은 수입국의 실제 보험료·운임 포함 가격(CIF)으로 하고, 국내가격은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도매가격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 全中이 검토자료로서 고려하고 있는 관세상당치를 보면, 국제가격은 태국산 저급미를 기준으로 하고, 국내가격은 일본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1,037%에서 1,310%까지 계산하고 있다(표 6).
- 한편 1,000%이상의 관세상당치 설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은 마크업 설정 전례와 각국의 관세화의 운용상의 「더티 테리피케이션」 실태로부터 고율관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 (다) 마크업의 설정

- 일본은 이행계획서에 제출한 마크업을 1kg당 292엔으로 설정하고 있다. 계산근거는 1986-88년 태국에서 수입한 인디카 계통의 찹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이다.



- 관세화는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4단위 기준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며, 4단위기준은 쌀 한가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태국 찹쌀을 계산의 기초로 한 것은 협정상 문제는 없다는 것이며, 정미 기준의 마크업으로 통일하여 1 kg당 292엔으로 계산한 바 있다<sup>3)</sup>.
- 따라서 일본은 고율관세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 기준가격의 협정 규정에 적합 여부에 의해 클레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 (라) 더티 테리피케이션(Dirty Tariffication)

- 관세상당치는 국제적으로 가장 싼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국내 도매가격과의 차액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설정된 관세상당치는 현실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쌀의 고율 관세상당치의 설정 근거로서 주장되고 있다.
- 일본이 이행계획서에서 관세상당치를 설정하고 있는 품목은 <표 7>과 같다. 이것을 보면 생사를 제외하고는 관세상당치만으로 1995년은 물론 2000년의 국내가격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수준에 있다. 따라서 관세화가 직접적으로 농업에 타격을 가하기는 커녕, 관세상당치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4)</sup>.

#### 관세상당치 시산

---

3) HS 6단위로 보아도 벼, 현미, 정미, 쉐미 등 4분류로 되어 있으며, 인디카, 자포니카, 찹쌀, 멥쌀 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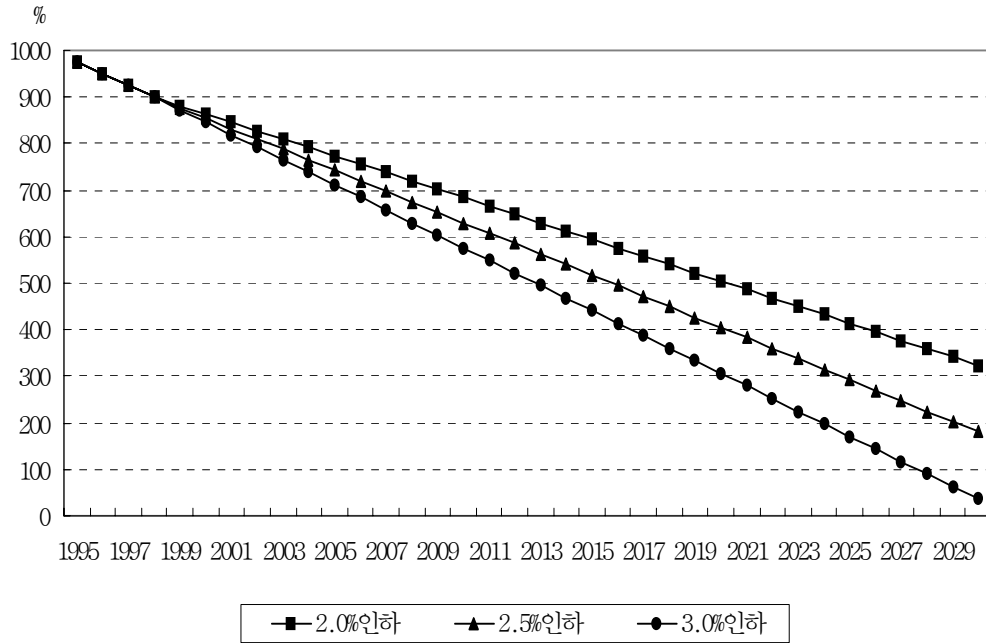
4) 일본은 소맥의 경우 수출보조금이 포함된 저가의 영국산 소맥의 한국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더티 테리피케이션이 실제로 일본·EU 등 많은 국가들에 의해 다면적으로 활용되고 있다(今村奈良臣外「WTO體制下の食料農業戰略」農山漁村文化協會, 1997).

		기준가격 (천엔/톤)	관세상당치	
			종가세(%)	종량세(엔/kg)
국내가격	상급미 도매가격	435	1,310	404
	중급미 도매가격	386	1,152	355
	저급미 도매가격	351	1,037	320
국제가격	태국산 A1스페셜	31	-	

자료 : JA全中, 1998. 11.

주 : 기준년도는 1986-88년임.

### 관세상당치 감소추이



주 : (1) 1986-88년의 기준 관세상당치 1000%  
 (2) 1995-98년간의 연간 관세상당치 인하율 2.5%  
 (3) 1999년이후 매년 ①2.0%, ②2.5%, ③3.0%로 상정한 경우의 관세상당치 추이임.

#### (마) 관세상당치에 대한 미국의 입장

○ UR협상과정에서 쌀 관세율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303%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일본측은 700%전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본 국내에서도 700%는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관세화 찬성파로 구성된 「정책구상포럼」은 1990년 4월 쌀 관세율을 164%—308%로 시산한 적이 있다.

- 정책구상포럼의 시산 중에는 303%의 관세율이 있다. 이것은 당시 일본의 정부미 가격과 캘리포니아 중급미 가격을 비교한 숫자이다. 미국측이 이 숫자를 인용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보다 상당히 낮은 관세율을 검토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sup>5)</sup>.
- 최근 미국 통상대표부(USTR) 바세프스키대표는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쌀 조기관세화에 대하여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1000%의견도 있지만 미국은 최대로 300%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바 있다<sup>6)</sup>.

### 관세상당치와 국내가격의 비교(일본)

단위 : 엔/kg

	관세상당치		국내가격	
	1995	2000	금액	비고
소맥	65	55	44	정부매도가격(1993)
대맥	46	39	39	정부매도가격(1993)
탈지분유	500	425	544	도매가격(1992)
버터	1,200	1,020	1,134	도매가격(1992)
전분	140	119	117	고구마매입가격(1993)
땅콩	726	617	504	생산자판매가격(1992)
누에고치	2,968	2,523	1,682	농가수취가격(1992)
생사	8,209	6,978	10,944	요코하마평균(1992)

자료 : 今村奈良臣外 「WTO體制下の食料農業戰略」農山漁村文化協會, 1997.

주 : 관세상당치는 국별이행계획표에 의한 것임.

### (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의 전환

5) 輕部謙介 『日米コメ交渉-市場開放の真相と再交渉への展望-』中央公論社, 1997

6) 「朝日新聞」1998年 12月 3日字

- 관세율 1000%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자 일본은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종량세는 수입가격 하락시 유리하며, 관세율 1000%에 대한 미국 등의 반발에 대응하면서 수입저지효과도 충분히 있다.
- 종량세 선택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다. 중국은 단립종을 생산하며, 미국에 비해 인건비·수송비가 싸다. 앞으로 품질향상·비용절감에 의해 저가격 수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WTO협정에 따라 종량세를 계산하면 1kg당 320엔에서 404엔까지 가능하다. 중급미는 355엔이다. 한편 일본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kg당 350엔의 종량세를 가정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금액을 비교하면,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종량세에 의한 금액은 종가세(1000%)에 의한 관세상당치의 35%내지 42%수준에 불과하다.
- 종량세 부과후 가격을 자주유통미가격과 비교하면, 최고급 쌀인 니이가타 우오누마(魚沼)산 고시히카리보다는 12-15%정도 낮지만, 니이가타의 일반 고시히카리에 비해서는 17-22%, 자주유통미 평균에 비해서는 44-55%정도 높다. 따라서 종량세가 수입저지효과가 있으면서 외압을 피하면서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최선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 종가세와 종량세의 비교

	태국산	미국산	비고
(1)수입가격(엔/kg)	83	101	
(2)관세상당치(엔/kg)			
종량세(A)	350	350	
종가세(B)	830	1,010	
A/B(%)	42.2	34.7	
(3)종량세부과후 가격(엔/60kg)	25,980	27,060	○ 자주유통미가격(엔/60kg) -魚沼 코시히카리 30,600 -일반 코시히카리 22,211 -자주유통미 평균 18,082

주 : (1) 수입가격은 최근 수입가격기준임.

(2) 관세상당치는 종량세는 350엔/kg, 종가세는 1000%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임.

(3) 자주유통미가격은 11월말 가격임. (4) 현미기준임.

### 3.3. 관세화의 합의과정

#### (1) 농림성의 관세화노선 결정

- 농림성은 농정개혁의 과정에서 관세화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기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1997년부터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1998년 11월 18일 처음 공표하였다.
- 농림성은 WTO협정 개정은 현 단계에서 곤란하다는 판단에서, 현행 WTO협정 내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선택하였다. 국익 우선주의에 서서 조기관세화를 기정 사실화하였으며, 단지 자민당·농업단체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 즉 조기관세화는 政(자민당)·官(농림성)·農(농협) 「3자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3자 모두 최근까지 「관세화반대」주장을 해왔다. 더욱이 짧은 시간에 선택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농협의 지지와 자민당의 협력으로 12월 14일 관세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 (2) 농협의 조건부 지지

- 농협은 「농업대책추진본부위원회」를 설치, MMA수량, 관세율 시산, 국내산 쌀에 대한 영향, 차기교섭과의 관계 등을 분석한 후, 생산자측에서의 최선의 방법을 검토하였다.
- 반대의견은, ①1000%이상의 고관세를 장기간 계속할 보장이 없다, ②농업의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 생산자·소비자를 포함한 폭넓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③조기관세화는 차기협상이전에 WTO체제에 굴복한 것과 마찬가지로, 식료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등의 불안·불만으로 요약된다.
-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농협은 11월 26일 조직 토의에 착수하였으며, 12월 14일까지 지방조직의 의견을 집약하였다. 의견집약 결과, 전국 30여

개현 농협중앙회가 조건부 찬성, 4개현 농협중앙회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결과를 감안하여 12월 16일 이사회에서 조건부찬성을 결정하였다.

- 농협이 관세화 수용을 전제로 제시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WTO 차기협상에서 3자가 공동전략을 수립한다.
  - ②관세상당치는 가능한 한 고수준을 확보하고, 관세형태는 장기적인 조건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③1993년 12월 17일의 각의결정(MMA도입에 따른 생산조정을 강화하지 않는다.)에 근거, 수입미는 책임을 가지고 처리한다.
  - ④도작농가가 전망을 가질 수 있는 만전의 국내대책을 확립한다.

### (3) 자민당의 관세화 선회

- 자민당은 「농림수산물무역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관세화가 현행 협정에서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는 적극론과 일단 수용하면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양분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농협의 지지를 근거로 하여 관세화로 선회하였다.
- 자민당은 12월 16일 농협이사회의 조건부지지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면서 별도의 약속을 보장하는 선에서 관세화 방침을 결정하였다. 즉 자민당은 정부에 대하여 ①식량안보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근거한 수입제한조치·보조금, ②수출국에 유리한 농업협정 수정, ③MMA의 감축등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 자민당·농림성·농협은 차기협상을 위해 일본의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검토하는 장으로서 「WTO농업문제 3자회의」를 설치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기로 합의한 후, 쌀 관세화를 정식으로 결정하였다(자료 참조).
  - ①농업의 다면적 기능, 식량안보에 근거한 주장
  - ②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
  - ③쌀의 MMA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

- ④국제적인 식량 과부족의 조정을 기능강화 방안
- ⑤수출국의 주장에 대응하는 협상방안

## 4. 차기협상의 전망과 향후과제

### 4.1. 차기협상의 전망

- 2000년 초부터 시작하는 차기협상은 2가지 협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체 가맹국이 참가하는 「전체협상」과 일본의 쌀 관세화 특례조치에 대하여 협상하는 「쌀특례조치협상」이다. 그러나 일본이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 쌀 특례조치협상은 없어지게 된다.

#### (1) 협상국

- 전체협상에는 132개 가맹국·지역이 참가하며, 보조·보호를 삭감하는 「개혁과정의 계속」 협상으로서 시장접근, 국내농업보호, 수출보조금이 주요과제가 된다.
- 협상기간, 협상방식, 항목 등에 대해서는 WTO일반이사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 (2) 쟁점으로 예상되는 협상항목

- 일본의 관심사항은 농업의 다면적 기능의 역할, 식량안전보장,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균형유지 등의 관점에서 각각의 항목별로 새로운 규율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으며, 쟁점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국경조치(관세수준, 접근기회의 제공량 등)
  - ②국내보호(황색정책의 삭감, 청색정책의 유지, 녹색정책의 범위확대 등)
  - ③수출경쟁(수출보조금, 수출금지조치)
  - ④비교역적 관심사항(식량안보, 농업의 다면적 기능)

## ⑤국영무역(필요성, 규제방법)

## 차기협상의 2가지 구도

	전체 협상	쌀특례조치 협상
협상시기	○ 2000년	○ 2000년
협상기한	○ 기한 없음	○ 1년간 (타결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관세화, 8%MMA유지)
참가국	○ 가맹국 132개국	○ 관계국만 참가 - 미국, 호주, 태국 - 일본, 한국, 필리핀 (한국, 필리핀은 2004년시작)
협상사항	○ 관세율 인하 ○ 시장접근 확대 ○ 국내보호 삭감	○ MMA 계속 - MMA수입량 확대 - SBS확대
	○ 농업의 다면적 기능 ○ 식량안전보장 ○ 공정한 무역규율 확립	○ 관세화 - 관세율 인하 - MMA유지
이해 관계국	○ 협조국 : EU, 아시아, 개도국 ○ 대립국 : 미국, 케언즈	○ 협조국 : 한국, 필리핀 ○ 대립국 : 미국, 호주, 태국

## (3) 미국의 관심사항

- 미국의 관심사항은 농업분야의 시장접근 확대, 수출보조 감축, 국내보호 감축과 WTO농업협정의 「유연조치」를 개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7)</sup>.
- WTO협정은 관세 이외의 모든 국경조치의 관세화, 무역을 왜곡하거나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에 의한 국내보호, 수출보조금의 감축 등 원칙을 설정하였으나 다양한 유연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① 관세인하율을 단순평균으로 36%, 1품목 최저 15%로 한 것(품목이

7) “WTO次期交渉への戦略を探る” 「農業と經濟」 富民協會, 1998年 7月號



1000개를 넘기 때문에 중요품목은 15%로 할 수 있다).

- ② 관세상당치 설정시 폭넓은 허용도 인정(수입가격을 인접국가의 가격 인정)
  - ③ 관세화 품목에 대하여 상대국에 대가없이 SSG를 설정
  - ④ 국내보호 감축에 대하여 개별품목별이 아니라 총량기준으로 한 것(그 결과 개별품목의 과부족이 상쇄, 미국·EU·일본은 감축필요가 없어진 점).
  - ⑤ 감축대상 제외조치로서 Blue Box, Green Box 등을 설정한 점.
  - ⑥ 관세율 삭감률을 15%로 설정한 결과, 선진국에서도 100-500% 등 고 보호 품목이 있는 점 등
-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유연 조치에 대하여 차기협상에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유연조치는 농업생산조건이 다른 국가간에 포괄적 관세화·국내보호의 감축이라는 원칙을 수용하는데 불가피한 조치이며, 6년간이 경과한 차기협상에서 그 역할이 끝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이러한 유연 조치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 (4) 협상방식

- 협상방식에 대하여 「개별방식」이나 「포괄방식」이나를 둘러싼 논란이 제2차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금년 9월의 「예비협상」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U·일본은 포괄방식, 미국은 개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미국 및 케언즈 그룹은 UR협상시에는 포괄방식을 지지하였으나, 차기협상에서는 개별방식에도 이점이 있다고 판단, 개별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 UR에서는 시장접근분야만이 아니라 수출보조 감축, 국내보호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포괄방식이 유리하였다. 차기협상이 「보호감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으로서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은 농업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 협상분야를 미국의 이해와 관계되는 분야를 한정하여, 분야별로 미국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다. 개별방식은 포괄방식에 비해 협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포괄방식은 협상분야 전체의 이해득실이 고려되나, 개별방식은 그러한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 일본은 개별방식은 지연·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포괄방식은 협상 범위가 넓고 거래 재료도 많아 전술상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포괄방식도 장기화가 예상되나 이것은 전략적으로 유리하며, 단기 결전이면 졸속이 우려되나 장기화가 될수록 식량안보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단지 개도국이 환경·근로기준·경쟁정책은 경제발전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개도국과의 연계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 2. 향후 과제

- 관세화 특례조치의 적용을 중단하고 조기 관세화로 전환한 것은, 첫째 MMA를 최대 7만 6000톤까지 감소할 수 있고, 고율 관세상당치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둘째, 전략적으로 차기협상에서 예외없는 관세화라는 WTO의 이념에 반하면서 관세화 거부에 집착하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의 대일 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세화 문제를 사전에 종결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 국영무역, MMA수량, 국내보조 등의 쟁점에서 실리를 노리는 편이 이득이라고 판단한 결과이다.
- 일본 정부는 관세화에 따른 실리를 얻으면서 차기협상에서 쌀 관세화의 쟁점에서 훌가분하게 벗어나 다른 품목의 관세율 교섭, 농업보조금 등 국내 농업보호문제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실리를 선택한 셈이다.

- 일본은 차기협상에서는 국토·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면적 기능 등을 토대로 관세율 등 시장접근, 식량안전보장정책, 쌀 경영안정대책, 중산간지역에 대한 직불제 도입 등 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제적인 규율을 확립하기 위하여, EU 및 개도국과 연대하여 미국 등 수출국에 대항한다는 전략이다.
- 조기관세화를 결정함으로써 차기협상에서 「전체협상」에만 전념할 수 있어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할 수 있다. 1993년 12월 15일, 쌀 관세화 특례조치인 MMA를 수용한 이래 5년 만에 다시 관세화로 전환한 일본으로서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
  - 첫째, 쌀 관세화를 단행함으로써 당분간은 종량세의 고액 관세상당치를 설정하여 MMA를 초과하는 추가적인 수입을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차기협상에서 관세율 인하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장기적인 수입저지효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차기협상에서 관세인하율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과제이다. 그리고 정부·자민당·농협간의 「WTO농업문제 3자회의」에서 합의한 사항, 즉 ①농업의 다면적 기능, 식량안보에 근거한 주장, ②수출국과 수입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 ③쌀의 MMA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방안, ④국제적인 식량 과부족의 조정을 기능강화 방안, ⑤수출국의 주장에 대응하는 협상방안 등에 대하여 수출국을 설득하여 일본의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 둘째, 국내 농업 및 쌀 문제에 대한 추가대책이다. 작년 발표한 「새로운 쌀정책」에서 생산조정방식으로 전환하고, 가격하락에 대비하여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3자 합의사항으로 쌀에 대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조기관세화에 따른 추가 대책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과제이다.

## 유러(euro)화 출범의 의미

### 1. 유러(euro)란

- 유러(euro)란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EMU)에 참여하는 11개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통화를 말함.
  - 현재 유럽통화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화단위는 에큐(ECU)인데, 유러는 1999년 1월을 기해 이 에큐와 1:1로 대체하게 됨.
  - ※ 에큐(ECU) 시스템은 15개 EU회원국 가운데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를 뺀 나머지 나라들의 통화를 바스켓에 넣어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임.
  - 1995년 12월 마드리드 유럽정상회담에서 1유러를 1에큐로 교환한다는 원칙이 정해짐. 따라서 1유러는 6.60프랑(프랑스), 1.97마르크(독일), 1.950리라(이탈리아), 1.1달러(미국)가 될 것으로 전망됨.
  - 1999년부터는 기존통화를 다른 회원국 통화로 바로 교환하지 못하고, 중간단계에 반드시 유러를 넣어야 함. 예를 들어 마르크를 프랑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르크→유러→프랑’의 형태로 환전해야 함.
- 유러를 단일통화로 사용하는 EMU에 참여하기 위해 1998년말까지 각국이 지켜야 할 다음 네 가지 조건을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서 규정함.
  - ① 물가상승률은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EU 회원국중 가장 낮은 3개국 평균을 1.5% 이상 초과해서는 안됨.
  - ②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안 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여야 함.

- ③ 환율은 최근 2년간 유럽환율조정장치(Exchange Rate Mechanism: ERM)에 따른 기준환율의 2.25%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함.
  - ④ 이자율은 장기금리 기준으로 가장 낮은 3개국 평균금리의 2%를 초과하지 말아야 함.
-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7~8개국뿐이었음. 그러나 각국은 EMU에 참여하기 위해 그 동안 피나는 노력을 함.
- 이탈리아는 '유럽세'라는 한시적인 세금을 도입하면서까지 재정적자 비율을 1년 사이에 GDP 6.7%에서 2.7%로 낮추었음.
  - 프랑스는 생계보조비 인상을 요구하는 실업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프랑스 텔레콤'을 민영화한 매각대금을 재정에 편입시킴으로써 간신히 3%의 기준에 맞춤.
  - 독일은 금 보유고를 마르크로 환산하여 재정에 편입시킴으로써 3% 기준을 충족시킴.
  - 그러나 이탈리아와 벨기에는 정부부채 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유러랜드에 참여함. 이탈리아는 121.6%, 벨기에는 118.7%의 재정적자를 기록함.
- 1998년까지 11개국이 유러랜드의 제1차 참여국으로 결정됨.
-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등 11개국
  -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 3개국은 환율조정장치(ERM)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스는 참가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제1차 EMU에서 제외됨.
- 제1차 참여국 중에서 재정을 다시 방만하게 운영하여 과도기 동안 유러 안정에 위협이 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안정화협약'도 제정함.

## 2. 유러 체제 구축의 추진일정

- 내년에 유러화가 도입되도 당장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완전한 통용까지는 3단계를 거쳐야 함.
  - 1999년부터는 정부간 또는 은행간 거래에만 유러가 사용되고,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재화에 각국통화뿐만 아니라 유러를 표기하도록 함.
  - 유러가 실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2002년부터이며, 이후 6개월간 기존 통화를 교환하여 7월부터 완전히 유러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짐.

유러화 단계별 도입 내용

제1단계 (1999년 1월~2001년 12월)	제2단계 (2002년 1월~6월)	제3단계 (2002년 7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나 은행간 거래에만 사용</li> <li>· 회원국의 국공채 발행은 전부 유러로 표시</li> <li>·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러로 금리 및 통화정책을 수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생활에서 회원국 통화와 유러화 병행 사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회원국 화폐는 모두 가치 상실</li> </ul>

- 지금까지 진행된 유러화 출범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 유러 체제를 출범하기로 결정한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임. 이 때 단일통화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과 구체적인 출범 일정이 결정됨.
  - 1994년 유럽통화기구(EMI)가 창설되어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을 시작
  - 1995년 마드리드회담에서 공동화폐의 이름을 '유러(euro)'로 결정함.
  - 1998년 5월 브뤼셀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을 제1차 참여국으로 결정하고 유럽중앙은행의 총재와 임원을 임명함.
  - 1998년 6월 유럽중앙은행(ECB)이 독일 연방은행인 분데스뱅크가 위치한 프랑트푸르트에서 공식 출범함.

- 1998년 12월 유리를 에큐에 1:1로 연계시키고 이 교환비율을 고정시킴. 그리고 에큐는 폐기함.
- 1999년 1월부터 은행간 및 정부간 거래에는 유리를 사용해야 하고, 역내 거래되는 모든 재화에 각국통화와 유리를 병행 표기함.

#### 유러화 추진 일정

1992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에 유리를 출범하기로 결정</li> <li>- 네 가지 단일통화 참가기준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나라만 참가할 수 있도록 함.</li> </ul> </li> </ul>
1994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통화기구(EMI)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의 전단계로써 유럽통화기구가 역할을 시작함.</li> </ul> </li> </ul>
199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드리드 EU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단일통화의 명칭을 '유리(euro)'로 결정함.</li> </ul> </li> </ul>
1998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뤼셀 EU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참여국을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으로 결정</li> <li>- 유럽중앙은행의 총재 결정</li> </ul> </li> </ul>
1998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중앙은행(ECB)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CB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둠.</li> </ul> </li> </ul>
199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의 통화가치 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중인 에큐(ECU)에 유러화를 연계시키고 에큐는 폐기</li> </ul> </li> </ul>
199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일통화 유리(euro)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간 결제 및 금융기관 거래시 유러를 사용하기 시작</li> <li>- 모든 물건값에 각국통화 외에 유러 표기</li> <li>- 외환시장에 유러화 상장</li> </ul> </li> </ul>
2002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러 화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금융부문 업무는 유러화 체제로 완전 전환</li> <li>- 유러화 지폐와 동전 유통 시작</li> <li>- 6개월간 모든 개별 국가의 화폐를 유러화로 교체</li> </ul> </li> </ul>
2002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러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국 화폐 가치 상실, 전유럽 유러화로 통일</li> </ul> </li> </ul>

### 3. 유러 체제 출범의 영향

- 유러의 출범은 새로운 거대 경제권이 형성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세계금융시장에서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출범함을 의미함. 즉, 유러의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① 유러가 기축통화가 되면서 나타나게 될 영향과 ② 유럽이 하나의 가격으로 통일된다는 점임.
-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의 양극화
  - 기축통화란 국가간의 결제나 세계금융 거래에 기준이 되는 통화로 자본시장에서는 준비통화 및 개입통화 역할을 하고 교역시장에서는 결제통화 역할을 하는 화폐임.
  - 지금까지는 달러가 유일한 기축통화였음. 기축통화는 돈의 명목가치와 발행비용의 차이인 화폐발행 차익(일명 세뇨리지 효과: Seignorage effect)을 누릴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이 차익을 미국이 독식해 왔음. 미국이 그 동안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었음.
  - EMU 출범은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새로운 경제권이 형성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러 가치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다면 유러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음.
  - 유러가 기축통화가 되면 국제 무역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전세계 무역결제의 약 30~35%를 점유하게 될 것이며,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유러화 구성비도 EMU 완성 후 수년 안에 25~30%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음. 세계 외환보유고 1, 2, 3위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이 모두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유러로 바꿀 방침을 이미 정함.



## ○ EMU내에서의 경제적 효과

- 거래비용 감소: 국가별 통화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전비용이 제거됨으로써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남.
- 금융부문의 서비스 비용 감소: 각국의 자본시장이 하나의 통화로 거래됨으로써 유리의 유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달을 촉진할 것임.
- 물가의 하향 안정화: 국가별로 달랐던 물건값이 '유리'라는 단일통화로 표기됨에 따라 국가간 가격비교가 용이해짐. 결과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되어 소비가 촉진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것임.
- 투자 및 성장 촉진: 참가국간의 환율이 고정됨으로써 안정적으로 투자 및 수출입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함.
- 실업률 상승: 유리화 안정을 위해 각국이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를 줄이는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급증하게 될 것임.

## ○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달러 및 엔화 거래가 많은 아시아 경제권은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임. 당분간 국제금융자본은 달러에서 유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돼 엔화 가치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세계유동성이 유럽으로 이동하게 되어 아시아 지역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이 지역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도 있음. 유리화의 출범으로 아시아 지역은 더욱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분석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음.
- 다른 한편, 강제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은 유리는 이 지역의 수입을 증가시켜 아시아지역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세계 통화시스템이 달러와 유리의 양극체제로 갈 것이므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임.

## 4. 유러 체제의 성공 가능성

- 유러 체제의 성공가능성을 높게 이유는 유러 초기도입국들의 경제 규모임. 단일통화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11개국의 경제규모를 합하면 미국과 대등함.
  - GDP 규모는 7조 2천억 달러로 미국의 8조 6천억 달러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로 대등한 지위를 가지게 됨. 인구도 2억 9천만명으로 미국의 2억 6천만명보다 많음.
  - 이는 유러가 이들 국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함.
  - 제1차 참여국에서 빠진 영국, 스웨덴, 덴마크, 그리스 등도 합류하게 되면 경제규모, 인구, 교역량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게 됨.

유러랜드 · 미국 · 일본의 경제력 비교

1997년 기준				
	단 위	유러랜드	미국	일본
인 구	백만명	292	268	126
G D P	10억 달러	7,200	8,600	4,200
세계무역비중	%	20.9	19.6	9.8
세계외환보유고 비중	%	20.1 <sup>1)</sup>	61.5	6.0

1) 영국 파운드화 포함.

- 유러가 기축통화로 자리를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가들은 3~5년으로 예상하고 있음.
  - 유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폐로써의 통화 가치의 안정이 중요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참여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며 인플레이션도 낮게 유지해야 함.

- 유러화의 높은 성공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붕괴가능성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음. 유러화가 붕괴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며, 그 영향은 유럽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극심한 불황을 몰아갈 것임.
- 상이한 경제여건: 참가국들의 경제력이 천차만별임. 각국의 경제력이 상이하고 경제사이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통일된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함. 따라서 일관된 통화정책이 어렵게 되며, 이로 인해 유럽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혼선을 빚게 되거나 물가가 불안해지면 일부 참가국은 유러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음.
-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 참가국은 유러 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공공부채를 줄여야 함. 그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실업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각국의 재정 확대 압력으로 작용하여 다시 적자가 늘어날 수 있음.
- 특정국가의 경제 위기: 11개 참가국중 특정 국가가 갑자기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 다른 나라로 그 영향이 파급되어 유러의 안정이 붕괴될 수 있음.
- 상이한 정치·사회 여건: 상이한 언어 사용으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세제와 노동법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개별적인 환율조정장치가 없음: 회원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율 조정장치가 없음.

## 5. 유러 등장에 대한 각국의 대응

- 유러 체제의 출범에 가장 민감한 나라는 미국임.
  - 미국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약 8,000억 달러)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로 대외 채무와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해나가고 있음. 1997년말 외국인 소유 미국 재무성 채권 총액은 약 1조 2,000억 달러로, 그중 일부가 유러화로 빠져나가면 달러의 약세가 불가피함.
  - 문제는 달러가 유러로 대체되는 속도임.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 달러의 폭락은 불가피하며 그렇게 되면 국제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임.
  - 달러가치가 지나치게 하락하면 미국이 달러 방어를 위해 고금리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음. 그러면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가 사라지면서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음.
  - 지나친 달러의 약세는 국제금융시장을 혼란시킬 가능성도 많음.
  
- 유러 체제가 출범하면 국제금융시장은 유러와 달러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본 엔은 약세로 돌아서 지역통화에 그칠 수도 있음.
  - 일본의 GDP는 약 4조 달러로 유러 참여국의 절반밖에 안되며, 인구나 무역비중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엔의 약세는 불가피함.
  - 일본은 최근 '엔화의 국제화'를 위해 '미야자와 플랜'이라는 불리는 3백억 달러 규모의 자금과 5조엔에 달하는 자금을 아시아지역에 대출해줌.
  -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달러의 공백을 엔보다는 유러로 메우려고 하고 있어 일본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임.
  
- 영국은 EMU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런던 금융시장에서 유러를 통용하겠다고 발표함.
  - 이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외환기능을 영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 6. 유러가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 유러화의 가치와 원화 표시 환율

- 유러화의 가치는 1998년 12월 31일로 최종 확정됨. 1유러는 약 1.07~1.1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원화 표시 환율은 약 1,300~1,5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장기적으로 유러화가 안정되고 국제거래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유러가 새로운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게 되어 달러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원화에 대한 환율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 국내 외환시장

- 국내 외환시장은 달러-원화 시장을 제외한 이종 통화간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임.
- 그러나 유러 출범 초기 유러의 강세로 인한 달러의 약세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유럽지역 증권시장의 호황으로 이어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자본유출을 경험할 가능성도 있음.
- 그동안 달러 위주로 외환을 운영해왔던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 금융기관들도 유러화를 포함하여 외환 포트폴리오로 재구성해야 함.
- 금융기관들이 유러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럽은행과의 전략적 제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정부는 유러화 출범에 따른 각종 시나리오를 작성해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함. 특히, 유러의 강세로 인해 미국과의 대결구도가 국제금융시장에 그대로 나타날 경우, 달러-엔 환율, 유러-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변할 수 있고 이는 국내경제 불안으로 이어짐.

#### ○ 국내산업

- 유러화가 강보합세로 출범한 후 강세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지배적임. 그러면 유럽지역에서 우리 상품이 충분히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므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그러나 유럽기업들의 원가도 크게 줄어들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특히, 전통적으로 유럽기업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화학, 자동차, 철강, 가전, 통신부문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반도체는 달러 중심으로 결재를 하고 있고, 이미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기계부문은 가격탄력성이 낮아 영향이 적으로 것으로 전망됨.
  - 자판기, 현금지급기 등의 자동기계는 공급능력에 비해 수요가 단기 간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기업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러 체제의 출범은 그 동안 유럽 공동농업정책(CAP)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됨.
- 그 동안 공동농업정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예산 집행은 에큐(ecu)로 하지만, 실제 농민은 자국 통화로 수령하게 됨. 따라서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한 회원국의 농민은 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며, 경제가 안정되어 화폐가치가 안정된 회원국 농민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게 됨.
  - 유러 체제의 출범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함. 따라서 공동농업정책 수행이 전보다 수월해질 것임. 또한 전지역에서 하나의 가격이 형성이 형성되므로 역내 농산물 시장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임.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지불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부문
- 유러 11개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은 농업부문은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1998년 10월까지 대 유러 11개국 수출비중은 전체 농림수산물 수출액(통관기준)의 5.5%에 불과하고, 수입액 또한 4.8%에 불과함.
  - 전문가들은 유러화와 회원국 통화가 혼용되는 2002년 6월까지 수출입 모두 유러화로 결재하는 것이 유리하나, 회원국 통화로 된 계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회원국 통화로 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수출입자도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음.

유러 11개국과의 농수산물 교역현황(통관기준)

단위: 백만 달러

		1996	1997	1998. 10
수 출	전 체	3,454	3,339	2,442
	유러 11개국 (비중, %)	125 (3.6)	123 (3.7)	134 (5.5)
수 입	전 체	12,014	11,232	5,716
	유러 11개국 (비중, %)	530 (4.4)	469 (4.2)	276 (4.8)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통계(KATI).

## 부록 2. 세계 곡물수급 동향 및 전망

### 1. 최근의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생산 영향

- 21세기 최대 기상이변으로 표현되는 지구온난화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축적되어 대기권 밖으로 반사되는 태양방사열을 흡수함으로써 온실과 같이 지구의 표면온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유엔환경기구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1세기 중반 지구의 평균기온이 1~3.5℃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강수량 감소에 따른 토양수분 감소로 농산물 수확량이 감소하며, 오존층 파괴는 자외선 증가에 따라 직접적으로 농작물의 광합성 등 생리작용에 영향을 끼쳐 수량감소 초래.
- 최근의 기상이변의 원인은 엘니뇨(해수면 온도 상승)<sup>8)</sup> 와 라니냐(해수면 온도 하락)<sup>9)</sup> 현상 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기상현상의 발생은 지구상의 에너지 분포와 대기의 흐름을 변화시켜 지역적 대홍수, 대한밭, 삼림화재 등을 초래해 농업생산에 악영향을 미침.
  - 엘니뇨와 라니냐는 항상 연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주기, 강도, 지속기간 등이 불규칙함. 엘니뇨의 소멸과 동시에 라니냐의 세력이 급속하게 확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기상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음.

8) 엘니뇨(El Niño: 아기예수라는 뜻)란 열대 태평양 적도부근의 남미해안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해수면온도가 평년에 비해 2~7℃ 정도 높아지는 기상현상. 엘니뇨는 2~6년 주기로 발생하는데 주로 9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에 나타나 중국남부, 일본 남부 등 아열대 지역과 태평양 중부, 미국남부, 남미대륙 중부에서 홍수유발.

9) 라니냐(La Niña: 여자아이)는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면서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현상. 우리 나라 및 아시아권은 9~10월 중 집중호우와 동절기 폭한 및 가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제기상기구는 예측함.



- 기상이변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농작물의 재배시기를 놓치는 경우, 생육중인 농작물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 농작물의 병 발생을 유도하거나 해충의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대별됨.
- 1980년 이후로 엘니뇨는 다섯 차례(1982/83, 1986/87, 1992/93, 1994/95, 1997/98) 발생하였는데, 특히 1988년의 경우는 세계 곡창지대인 미국에 대한밭이 발생하여 소맥 29%, 옥수수 47%, 대두 42%, 쌀 33% 등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였음.
  - 라니냐는 정상적인 대기순환을 가로막아 저기압의 이상순환 현상을 가져와 한반도에 이상저온(혹한)현상 및 폭설을 발생시킴. 라니냐가 발생한 1973년에 겨울철 평균기온이 예년에 비해 평균 약2°C정도 낮았으나, 1984년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후를 보였고, 1988년에는 예년보다 약2°C나 높은 따뜻한 날씨를 보임.

#### 엘리뇨와 라니냐 발생연도의 기상 특징과 쌀 수량

구분	발생 연도	연도	경과 기상 특징	쌀 수량 (kg/10a)	
				수량	평년 대비 <sup>1)</sup>
엘리 니 냐	1982/83	1982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경북, 전남 일부 가뭄 극심	438	+2
		1983	7월 집중호우와 다소 많은 감수량, 다소 저온	442	+10
	1986/87	1986	평년기상	454	+3
		1987	7월 상순까지 극심한 가뭄, 7월 이후 집중호우	436	-15
	1992/93	1992	평년기상	461	+1
		1993	저온, 일조부족으로 냉해와 병해	418	-35
	1994/95	1994	봄철과 7월 가뭄, 7월 고온	459	+7
		1995	8월 빈번한 강우 및 일조부족	445	-5
	1997/98	1997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 평년 강수량	518	+63
		1998	8월의 케릴라성 집중호우와 9월말 태풍 영향	482	+12
라 니 냐	1983/84	1984	평년과 비슷한 겨울철 기후	463	+31
	1987/88	1988	고온다습한 겨울철 기후	481	+30
	1998/99	1999	내년 상반기의 기상은 혹한과 폭설로 전망	?	?

주: 1) 평년수량은 과거 5개년 중에서 풍년과 흉년 2개년을 뺀 나머지 3개년의 평균 수량임.

- 1999년도에 라니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업생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겨울철 폭설에 따른 수자원 함량 증가, 혹한에 의한 병충해 발생(수도작의 경우 멸구 및 벼입벌레 등) 감소 등이 있음. 부정적 효과는 혹한과 폭설에 따른 시설채소의 난방비 상승과 시설파괴의 가능성 증대, 과수와 뽕나무와 같은 영년생 작물을 포함한 보리, 밀, 마늘, 유채 등 1년생 월동작물에 대한 동해 피해 등이 있음.

## 2. 주요곡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 소맥

- 1998/99년도 세계 소맥 생산은 기상악화에 따른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수량감소 예상으로 전년대비 4.1% 감소, 전월 예측치에 비해 0.4% 감소한 5억 8,580만톤으로 전망됨. 밀 수입량은 브라질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8% 감소했으나 전월대비 0.4% 증가한 1억 1,450만톤으로 전망되며, 수출량은 캐나다의 대소 수출물량 확대로 전년대비 2.8% 감소, 전월대비 0.1% 늘어난 1억 1,470만톤으로 전망됨.

### 옥수수

- 1998/99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EU와 남아프리카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감산으로 5억 9,700만톤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월대비 0.1%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는 3.2% 증가한 것임.
-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월예측치와 같은 수준이나, 전년대비 5.0% 증가한 2억 4,990만톤으로 전망됨. 기말재고량은 4,360만톤으로 예측되어 전년대비로는 18.5% 증가, 전월예측치 대비로는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입국인 한국의 수입량은 축산업 침체에 따른 사료곡물 수요감소로 전년대비 16.7% 감소, 전월 대비로는 같은 수준인 650만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대두

- 1998/99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1억 5,410만톤으로, 이는 전월 예측치에 비해 0.3% 증가, 전년도 대비로는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 기말재고량은 브라질의 재고량감소로 2,220만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로는 16.2% 증가한 것이나 전월 예측치 대비로는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대두 생산량은 전년대비 1.3% 증가, 전월대비로는 0.3% 감소한 한 7,520만톤으로 예측되고, 기말재고량은 9백만톤으로 전년대비로는 57.9% 증가, 전월대비 15.9% 감소로 전망.

## 쌀

- 세계 미곡의 3대 생산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1997/98년도 세계전체 미곡생산량의 50%를 차지. 쌀 교역량은 전체 쌀 생산량의 6.2%에 불과함. 특히, 미국은 세계 미곡생산량의 1.6%를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국이나 수출량은 13.1%를 점하여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274만톤에 달하며 이중 중·단립종 쌀의 수출량은 60만톤임.
- 1998/99년도 세계 쌀생산량은 중국의 대홍수에 따른 감수, 이탈리아 및 필리핀의 감수, 미국 미곡주산단지의 작황부진이 일부 반영되어 전달 예측치보다 0.2% 증가, 전년 대비로는 2.0% 줄어든 3억 7,740만톤으로 전망.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6.2% 감소, 전월예측치와 같은

수준인 4,390만톤으로 전망되나 이는 소비량 대비 재고량 비율에 있어서 FAO권장 수준을 훨씬 하회하는 11.4%에 불과하여 1972/73년 이래 최저수준임.

- 우리 나라 국민의 기호에 맞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호주의 관개농업지역, 중국북부 지방 및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서유럽의 하천유역 저지대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세계교역 가능 물량은 200만톤(미국 58만톤, 호주 58만톤, 이탈리아 53만톤, 중국 20만톤, 기타국 11만톤)에 불과함.
- 미국의 최대생산량 감소지역은 중단립종의 주산지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냉해 및 장마에 따른 식부연기 등으로 전월대비 5% 감소, 전년대비 21% 감소하여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세계 소맥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8.11월	1998.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05.9	111.1	136.9	<b>136.6</b>	23.0	△0.2
생산량	582.9	611.0	588.3	<b>585.8</b>	△4.1	△0.4
중국	119.7	123.0	110.0	<b>110.0</b>	△10.8	0.0
미국	62.2	68.8	69.6	<b>69.6</b>	1.2	0.0
EU-15	98.5	94.4	103.4	<b>103.4</b>	9.5	0.0
수입량	119.7	117.8	114.1	<b>114.5</b>	△2.8	0.4
EU-15	22.9	21.3	20.8	<b>20.8</b>	△2.3	0.0
북아프리카	14.3	17.4	15.6	<b>15.6</b>	△10.3	0.0
브라질	5.6	5.7	6.1	<b>6.1</b>	7.0	0.0
이용량						
소비량	577.6	588.4	601.4	<b>599.4</b>	1.9	△0.3
중국	112.6	115.0	116.0	<b>116.0</b>	0.9	0.0
EU-15	79.5	81.3	86.3	<b>86.4</b>	6.3	0.1
미국	35.6	28.3	37.9	<b>37.9</b>	33.9	0.0
수출량	124.8	117.9	114.6	<b>114.7</b>	△2.8	0.1
EU-15	38.3	33.3	35.1	<b>35.1</b>	5.4	0.0
미국	27.3	28.3	31.3	<b>31.3</b>	10.6	0.0
캐나다	19.5	20.0	15.0	<b>15.5</b>	△22.5	3.3
기말재고량	111.3	133.9	123.8	<b>123.0</b>	△8.1	△0.6
중국	24.2	33.6	28.4	<b>28.4</b>	△15.5	0.0
EU-15	14.8	15.8	18.6	<b>17.3</b>	9.5	△7.0
미국	12.1	19.7	22.5	<b>22.5</b>	14.2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5  
December 11, 1998

### 세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8.11월	1998.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b>공급량</b>						
기초재고	69.1	91.3	85.5	<b>85.8</b>	△6.0	0.4
생산량	591.4	578.6	597.4	<b>597.0</b>	3.2	△0.1
미국	236.1	237.9	249.9	<b>249.9</b>	5.0	0.0
중국	127.5	104.3	124.0	<b>124.0</b>	18.9	0.0
EU-15	34.8	38.7	33.2	<b>34.1</b>	△11.9	2.7
수입량	71.1	71.4	69.6	<b>69.6</b>	△2.5	0.0
일본	16.0	16.2	15.5	<b>15.5</b>	△4.3	0.0
EU-15	10.2	10.9	11.6	<b>11.6</b>	6.4	0.0
한국	8.3	7.8	6.5	<b>6.5</b>	△16.7	0.0
<b>이용량</b>						
소비량	569.2	582.2	588.7	<b>588.1</b>	1.0	△0.1
미국	179.2	189.1	195.6	<b>196.4</b>	3.9	0.4
중국	113.4	118.0	117.3	<b>117.3</b>	△0.6	0.0
EU-15	36.0	38.5	38.0	<b>38.0</b>	△1.3	0.0
수출량	73.2	73.0	70.8	<b>70.9</b>	△2.9	0.1
미국	45.6	37.5	42.6	<b>43.2</b>	15.2	1.4
아르헨티나	10.8	13.5	10.0	<b>9.0</b>	△33.3	△10.0
중국	3.9	6.0	4.0	<b>4.0</b>	△33.3	0.0
<b>기말재고량</b>						
미국	22.4	36.8	45.2	<b>43.6</b>	18.5	△3.5
중국	45.0	25.0	29.0	<b>29.0</b>	16.0	0.0
EU-15	3.3	4.6	1.8	<b>2.6</b>	△43.5	44.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5, December 11, 1998.

### 세계 대두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8.11월	1998.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17.5	12.9	19.1	<b>19.2</b>	48.8	0.5
생산량	131.7	156.5	153.7	<b>154.1</b>	△1.5	0.3
미국	64.8	74.2	75.2	<b>75.2</b>	1.3	0.0
브라질	26.8	31.0	29.0	<b>29.0</b>	△6.5	0.0
아르헨티나	11.2	18.5	16.5	<b>17.0</b>	△8.1	3.0
수입량	36.4	38.9	38.8	<b>39.0</b>	0.3	0.5
EU-15	15.3	15.5	15.8	<b>15.8</b>	1.9	1.9
일본	10.5	5.0	4.7	<b>4.7</b>	△6.0	0.0
중국	2.3	3.1	3.6	<b>3.6</b>	16.1	0.0
이용량						
소비량	135.8	148.7	150.2	<b>150.7</b>	1.3	0.3
미국	42.5	48.5	48.0	<b>47.7</b>	△1.6	△0.6
중국	15.3	17.7	16.9	<b>16.9</b>	△4.5	0.0
EU-15	16.1	16.6	16.7	<b>17.0</b>	2.4	1.8
수출량	37.0	39.5	38.6	<b>38.9</b>	△1.5	0.8
미국	24.0	23.7	22.9	<b>22.9</b>	△3.4	0.0
브라질	8.4	9.0	8.3	<b>8.3</b>	△7.8	0.0
아르헨티나	0.8	3.2	3.0	<b>3.2</b>	0.0	6.7
기말재고량	12.9	19.1	22.3	<b>22.2</b>	16.2	△0.4
미국	3.6	5.7	9.9	<b>10.2</b>	78.9	3.0
아르헨티나	3.4	6.7	5.0	<b>5.1</b>	△23.9	2.0
브라질	3.4	5.2	5.1	<b>4.7</b>	△9.6	△7.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5, December 11, 1998.

### 세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단위: 백만 톤

구 분	1996/97 실적치	1997/98 추정치	1998/99 전망치		변동률(%)	
			1998.11월	1998.12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공급량						
기초재고	50.1	51.2	51.8	<b>52.0</b>	1.6	0.4
생산량	380.1	385.0	376.6	<b>377.4</b>	△2.0	0.2
중국	136.6	140.5	132.0	<b>133.0</b>	△5.3	0.8
인도네시아	32.1	30.9	33.0	<b>33.0</b>	6.8	0.0
베트남	18.0	17.8	18.0	<b>18.5</b>	3.9	2.8
미국	5.5	5.8	5.9	<b>5.9</b>	1.7	0.0
수입량	17.4	23.9	20.6	<b>20.8</b>	△13.0	1.0
인도네시아	0.8	5.5	2.0	<b>2.0</b>	△63.6	0.0
일본	0.5	0.6	0.7	<b>0.7</b>	16.7	0.0
중국	0.3	0.4	0.5	<b>0.5</b>	25.0	0.0
이용량						
소비량	379.1	384.4	385.0	<b>385.4</b>	0.3	0.1
중국	132.1	136.7	137.0	<b>137.0</b>	0.2	0.0
인도네시아	34.0	35.8	35.2	<b>35.2</b>	△1.7	0.0
일본	9.3	9.2	9.2	<b>9.2</b>	0.0	0.0
수출량	20.2	23.8	21.9	<b>22.8</b>	△4.2	4.1
태국	5.3	6.0	5.8	<b>5.8</b>	△3.3	0.0
베트남	3.3	3.6	3.5	<b>3.5</b>	△2.8	0.0
미국	2.5	2.7	2.8	<b>2.7</b>	0.0	△3.6
기말재고량	51.2	52.2	43.4	<b>43.9</b>	△15.3	1.2
중국	25.6	27.5	21.4	<b>22.2</b>	△18.4	3.7
일본	3.1	2.8	1.9	<b>1.9</b>	△32.1	0.0
인도네시아	1.5	2.2	2.0	<b>2.0</b>	△9.1	0.0
미국	0.9	0.9	0.8	<b>0.8</b>	△11.1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345,  
December 11, 1998.